PARENT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IN MINISTRY: A QUALITATIVE STUDY OF ASSOCIATE PASTOR COUPLES I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THROUGH THE LENS OF INTERDEPENDENCE AND OBJECT RELATIONS THEORY

목회와 육아의 경험: 기독교대한감리회 부담임목사 부부의 3 세 이하 자녀 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 – 상호의존성과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A Practical Research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Byounghee Lee

December 2025

This Practical Research Project, completed by

Byounghee Lee

under the direction of his faculty committee and approved by its members,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Faculty Advisor

Jin Seong Woo,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Andrew Dreitcer

December 2025

ABSTRACT

Parent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in Ministry: A Qualitative Study of
Associate Pastor Couples i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through the Lens of Interdependence and Object Relations Theory

by

Byounghee Le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ived experiences of associate pastor couples i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as they navigate the challenges of raising children under age three while engaged in active ministry. Employ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with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e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researcher's doctoral work in Practical Theology a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Eight associate pastor couples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resulting in 25 significant statements, five thematic clusters, and four core categories.

The four emergent categories are: (1) Power Dynamics and Role Conflicts among Pastoral Staff, (2) Economic Pressures and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of Associate Pastors, (3) Tensions between Ministerial Duties and Parental Roles, and (4) Constraints in Managing Stress and Resolving Conflict. These findings were interpreted through the frameworks of interdependence theory and object relations theory, illuminating the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dimensions of conflict arising from imbalanced interactions among the church, senior pastors, and associate pastor couples, as well as from emotional struggles within the parenting process.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ministry and family life, underscoring the economic and emotional burdens faced by associate pastors. It calls for the Korean church to acknowledge the realities of pastoral family life and to implement supportive

structures and relational strategies. In particular, churches and senior pastors are urged to recognize associate pastor couples as co-laborers in ministry, fostering institutional support and relational restoration so that family and vocation may mutually reinforce one another.

As the first qualitative study to focus specifically on associate pastor couples in Korean churches, this research offers a nuanced understanding of pastoral family dynamics and proposes new directions for practical theological engagement.

KEYWORDS: Associate Pastor Couples, Interdependence Theory, Object Relations Theory, Attachment and Separation, Qualitative Research

국문 초록

목회와 육아의 경험: 기독교대한감리회 부담임목사 부부의 3 세 이하 자녀 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 – 상호의존성과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이병희

본 연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부담임목사 부부가 3 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깊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자는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8 쌍의 부담임목사 부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콜라이찌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25 개의 의미 있는 진술과 5 개의 주제 묶음, 4 개의 핵심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4 개의 범주는 1) 목회자 간 권력 관계와 역할 갈등, 2) 부담임목사 자녀 양육과 경제적 압박, 3) 목회 사역과 부모 역할의 갈등, 4)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해결의 한계'이다. 연구자는 이를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으로 분석하여, 교회와 담임목사, 부담임목사 부부간 상호작용의 불균형과 가정 내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음과 감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본질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교회 내 부담임목사의 사역과 가정생활 사이 균형의 어려움, 경제적 압박, 자녀 양육에서 갈등을 드러내며, 한국 교회가 사역자 가정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원과 배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교회와 담임목사는 부담임목사 부부를 동역자로 인식하고, 가정과 사역이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관계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교회 부담임목사 부부를 연구 참여자로 한 최초의 질적 연구로, 목회자 가정의 사역과 자녀 양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새로운 실천 방향을 제시한다.

키워드: 부담임목사 부부, 상호의존성, 대상관계이론, 애착과 분리, 질적 연구

SUMMARY

This qualitative study explores the conflicts and challenges faced by associate pastor couples in the Korean Methodist Church as they raise children under age three while actively engaged in church ministry.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metropolitan areas and included couples currently serving or with prior ministry experience. In-depth interviews were primarily conducted with male associate pastors, while female spouses—co-caregivers—were contacted via email.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which identified meaningful statements and organized them into thematic clusters and core categories.

The study's primary aim i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tensions experienced by associate pastors and their spouses in balancing ministry and early parenting, and to interpret these experiences through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interdependence and object relations theory. Ethical standards were upheld through IRB approval, and participant anonymity was rigorously maintained.

Four core categories emerged from the analysis. First, Power Relations and Role Conflicts Among Pastors: Associate pastors reported role confusion and relational strain within hierarchical church structures, particularly under the unilateral directives of senior pastors. Second, Child-Rearing and Economic Pressure: Couples experienced psychological stress stemming from financial insecurity, congregational scrutiny, and the burdens of early childcare, often struggling to reconcile ministry demands with family responsibilities. Third, Conflict Between Pastoral Ministry and Parental Roles: Extended ministry hours limited fathers' engagement in parenting, leading to emotional dissonance and diminished co-parenting capacity. Fourth, Limitations in Stress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Couples lacked effective

strategies for managing stress and resolving interpersonal tensions, often resorting to avoidance or temporary fixes.

Interdependence theory was utilized to examine the asymmetric relational dynamics between senior and associate pastors, as well as among the associate pastors themselves. Additionally, object relations theory shed light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parenting stress, particularly attachment processes and the separation-individuation stages between mothers and their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offers several pastoral implications. First, hierarchical power dynamics must be restructured to foster collaborative and respectful relationships among pastoral staff. Second, churches should implement institutional mechanisms to alleviate the financial and caregiving burdens borne by pastoral families. Third, structural adjustments are needed to support pastors in their parental roles, ensuring a healthier balance between ministry and family life. Fourth,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systems must be strengthened, and formal procedures for conflict medi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address stress and relational strain.

In conclusion, associate pastors and their spouses face significant challenges in both ministry and early parenting. This study calls for the Korean church to recognize associate pastors as co-laborers, not subordinates, and to develop policies and support systems that safeguard the well-being of pastoral families. As the first qualitative study to examine child-rearing within pastoral households in Korea, it offers valuable insights for theological discourse and ecclesial practice.

국문 요약

이 연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부담임목사 부부가 3 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회 사역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탐색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 지역에서 사역 중이거나 사역 경험이 있는 부담임목사 부부로 선정되었으며, 주로 남성 부담임목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여성 배우자 (공동 양육자)는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콜라이찌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고, 이를 주제와 범주로 묶어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부담임목사 부부가 교회 사역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을 통해 이들의 경험을 해석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윤리적 보호와 익명성이 보장되었으며,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승인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였다.

콜라이찌 분석 절차에 따라 도출된 4 개의 핵심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 간 권력 관계와 역할 갈등으로, 부담임목사의 사적 지시와 종속적 구조 속에서 교회 사역을 수행하며 권력 관계에서 역할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였다. 둘째, 부담임목사 자녀 양육과 경제적 압박으로, 부담임목사 부부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성도들의 시선, 경제적 불안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사역과 가정의 균형에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목회 사역과 부모 역할의 갈등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사역으로 인해 아빠로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가정에서 공동 양육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갈등을 겪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해결의 한계로, 자녀

양육과 사역 스트레스를 풀 뚜렷한 방법이 없었으며, 부부는 서로 참고 견디며 문제를 회피하거나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자는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을 통해 연구 결과를 해석하였다. 상호의존성 이론에서는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 동료 부담임목사와의 관계에서 비대칭적 의존 구조와 갈등을 분석하였으며, 대상관계이론에서는 공동 양육자인 아내와 3 세 이하 자녀 간의 애착 형성과 분리-개별화 과정을 중심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갈등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과 해석을 바탕으로 한 목회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목회자 간 권력 관계와 역할 갈등은 교회의 위계적 구조 속에서 부담임목사를 동역자가 아닌 종속적 위치에 머물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목회 구조는 권위 중심에서 협력과 상호 존중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부담임목사 자녀 양육과 경제적 압박은 목회자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임을 드러낸다. 교회는 목회자 가정의 양육 부담과 생계 문제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목회 사역과 부모 역할의 갈등은 가정과 교회 사이에서 균형을 잃게 만들며, 자녀의 성장 과정과 정서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목회자는 부모로서 역할을 존중받으며, 사역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해결의 한계는 개인의 영성이나 헌신만으로 극복될 수 없는 문제임을 시사한다. 교회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공적 절차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담임목사 부부는 교회 사역과 자녀 양육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회와 담임목사로부터 제도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회는 부담임목사를 단순한 종속자로 보지 않고, 동역자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목회자 가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과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 양육 문제와 교회 내 갈등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조명한 질적 연구로,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실천적 통찰을 제공한다.

감사의 글

20 여 년의 목회 여정 속에서, 나는 목회 전반부를 배움의 시기로 삼아 부담임목사님을 통해 목회의 기본과 정신을 깊이 익혀 왔다. 그리고 목회 후반부를 어떻게 열어갈지 고민하던 중,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다. 배움의 시간들은 내게 은혜와 감사의 연속이었다. 공부하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여러 이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상호의존의 은혜라 믿는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학업도, 논문도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목회와 연구가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아낌없는 격려와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신 로고스교회 성도님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논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던 내게 희망의 메시지와 따뜻한 격려, 그리고 전문적인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우진성 교수님과 김남중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클레어몬트에서 함께 배우고 걸어온 런닝메이트 김용화, 한태희, 백두산, 김태광 목사님들, 그리고 자주 연락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어 준 이상욱, 이종철, 김충진, 한선종, 가희제, 윤성은, 오천수, 홍성찬 목사님께도 감사드린다. 비록 함께 논문을 작성하지는 못했지만 2021~2023 년 입학 동기 목사님들의 격려 또한 큰 힘이 되었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응원해 주신 어머니와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힘든 기간을 묵묵히 함께 견뎌준 사랑하는 아내 한지혜, 그리고 소중한 딸 이예원, 아들 이재형에게 이 글을 바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문제 제기 (Statement of the Problem)

나는 2009 년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에 속한 서울 L 교회에서 부담임목사로 사역해 왔다. 사역을 이어오면서 동료 부담임목사들이 겪는 목회 사역, 가정생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보아왔다. 이들은 담임목사의 목회 사역을 보조하며, 교회의 행정과 예배, 심방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가정과 자녀 양육에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3 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의 책임을 대부분 배우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고, 부담임목사 본인은 교회 사역에 집중해야 했다. 이는 부부 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대해 부담임목사 부부는 교회 안의 권력 구조와 목회 사역 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며, 이것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나는 '3 세 이하 자녀를 둔 부담임목사 부부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또한 부담임목사 부부는 생활비 부족과 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부담임목사 부부는 교회로부터 일정한 생활비를 월급 형태로 받지만, 대부분이 받는 사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이는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자녀 한 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약 18 세) 키우는 데 약 3 억 6,500 만원이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1] 부담임목사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결코 개인의 무능이나 신앙의

[1] 이하나, "자녀 1 명 키우는데 3 억 6500 만원… 한국, 양육비 가장 비싼 나라," *여성신문*, May 9, 2023,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733.

부족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정생활과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을 살피고자,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3 세 이하 자녀를 둔 부담임목사 부부는 자녀 양육과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이와 같은 경제적 압박과 양육의 어려움은 교회 안의 사역 구조와도 맞물려 있었다. 부담임목사는 동료 부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과 함께 담임목사의 목회 사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동료 간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연, 연차, 서열 등 교회 안의 구조 문제로 인한 갈등뿐 아니라, 사역에서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도 어려움을 경험했다. 특히 자신의 역할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역이 혼란스럽게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교회는 결혼하여 자녀가 1~2 명 있는 목사를 부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3 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담임목사는 예상치 못한 돌봄의 공백을 경험하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병원 진료나 긴급한 상황에서 배우자와 아이를 돌보고 싶어도, 담임목사의 돌발적인 호출이나 사역 요청으로 인해 가정보다 교회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부담임목사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미안함과 자책감을 느끼며 마음에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교회 안에서 쌓인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대로 가정으로 이어졌다. 부담임목사는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자녀 양육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자책하며 더 힘들어했다. 이에 본 연구는 '3 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임목사 부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관리의 한계,' '동료와 교회 안에서 갈등 해결의 한계,' '그리고 자녀 양육과 목회 사역에서 겪는 딜레마'를 중심으로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부담임목사는 교회 사역과 가정 돌봄 사이에서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더 큰 구조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3 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을 사회, 목회,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2024 년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4 년 합계 출산율은 0.68 명으로,[2] 세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가정의 돌봄 부담과 경제적 압박,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목회 현장 역시 이 구조적 현실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목회자 가정의 양육 문제 또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사역하는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거나, 자녀 양육의 부담을 깊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나 자신도 과거 결혼 후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았지만, 현재 부담임목사로 사역하는 가운데 자녀 양육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절감하고 있다. 동료 부담임목사 부부들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들의 경험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3 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임목사 부부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갈등, 스트레스, 그리고 구조적 제약을 탐색함으로써, 목회 사역과 가정생활 간의 균형을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한국 교회가 목회자의 가정과 양육 환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신학적 함의와 제도적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현재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의 실천신학 목회학박사(D.Min. in Practical Theology) 과정에 재학 중이다. 2023 년 7 월 16 일부터 29 일까지 진행된 “DMIN Context of Ministry and Project” 수업을 수강하면서 김남중은 “질적 연구는

---

[2] 전혜원, “합계출산율 0.7 명 사회 한국은 정말 끝나는가,” *시사 IN*, January 10, 202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90.

연구자가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감이 되지 않는 주제라면 제대로 쓸 수 없다”[3]고 말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곧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직면한 출산의 어려움과 위기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담임목사들이 성직자로서 소명과 부부로서 책임을 동시에 감당하는 가운데 출산과 양육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이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B. 논지에 대한 토론 (Discussion of the Argument)

한국 교회는 성장과 부흥의 과정을 거치면서 담임목사 중심의 목회 체계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담임목사는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십을 맡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부담임목사의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 사이에 명시되지 않은 권력 관계와 역학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부담임목사의 사역 환경과 정체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과 요청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부담임목사는 자신이 목사로서 소명과 자율성 사이에서 혼란과 자괴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부담임목사는 사역과 가정생활, 자녀 양육 사이에서 역할 갈등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부담임목사 부부가 교회와 가정 안에서 어떤 심리적, 관계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연구 질문을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부담임목사 부부는 교회 사역 과정에서 어떠한 불안과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둘째, 담임목사의 지시 사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사역자 개인에게 어떤 갈등이나 불이익이

[3] Namjoong Kim, “D.Min. Context of Ministry and Project” (lecture, D.Min. Context of Ministry and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Los Angeles, CA, Summer, 2023).

발생하는가? 셋째,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넷째,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할 때, 배우자와 자녀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들을 통해, 본 연구는 부담임목사 부부가 경험하는 사역, 가정, 자녀 양육의 복합적 현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현상학적 방법(Phenomenological Method)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속에 내재된 의미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4] 따라서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에 속한 3 세 이하 자녀를 양육한 부담임목사 부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교회 사역과 가정, 자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다양한 갈등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기에,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참여자라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의 원리에 따라 선정하였다.[5] 연구자는 사전에 부담임목사 네트워크와 교단 내 지인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부부 중에서 최종적으로 7 쌍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서 사역하였으며, 교회의 규모와 사역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연구자는 동일한 부담임목사로서 유사한 사역 환경과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 과정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

[4]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trans.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and 권지성 (서울: 학지사, 2022), 102.

[5] "의도적 표집"은 자료를 수집한 뒤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 수집 방향을 결정하며, 이를 반복하여 자료를 계속 수집, 분석하는 절차를 따른다.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18), 248.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기준을 3 세 이하 자녀를 둔 부담임목사 부부로 한정하였다. 이 시기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과 정서적 교류에 크게 의존하는 시기로, 애착 형성과 자아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또한 양육과 목회 사역의 긴장 관계가 가장 강도 높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볼비(Bowlby)는 생애 초기 영아와 양육자 간의 관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형성하게 되는 강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애착(Attachment)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안하였다."[6] 영아는 출생 시부터 생물학적으로 부모에게 애착 되도록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으며, 양육자의 정서적 유대 자체가 영아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초기 애착이 이루어지는 영아 시기 양육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 전담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부모, 특히 아빠는 제 2 애착 대상으로 자녀에게 아버지의 정서적 투자(Emotional Investment)가 이루어지면, 아동의 인지적 발달, 정서적 안녕,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이에 대해 정삼환은 "아빠인 목회자가 자녀와의 관계를 맺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아빠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자녀의 학업 성취와 동기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담임목사는 교회 사역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며, 이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을 경험한다. 김충진은 "한국 교회에서 부교역자는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자신의 건강과 젊음을 희생하면서 사역에 헌신하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

[6] 방희정, "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parenting)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14, no. 1 (2009): 68.

[7] 방희정, "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parenting)에 대한 비판적 고찰," 80.

[8] 정삼환,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는 목회자의 가정: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Th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1), 58.

불확실한 위치에 있는 존재들"[9]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부담임목사는 교회에서 소진된 상태로 가정으로 돌아오며,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적, 정서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삼환은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교회 사역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면 가정에서는 가족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여력이 남지 않게 된다"[10]고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가족에게서 정서적 충족을 기대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부담임목사는 사역과 가정 사이에서 역할 갈등이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며, 이는 자녀 양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아빠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정서적 교류의 기회를 잃게 되었으며, 특히 3 세 이하 영유아기의 경우 부모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돌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재는 양육의 전적인 부담을 배우자에게 전가하고 부부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또한 3 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초기 양육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는 부모가 부모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의 균형을 재조정한다. 그러나 부담임목사 부부 경우, 교회의 위계적 구조와 과중한 사역 책임으로 인해 이러한 역할 재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3 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은 가족 발달 주기의 전환점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긴장, 정체성 혼란, 관계적 갈등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었다. 나아가 3 세 이하의 시기는 사회적 돌봄 (예: 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의 개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정 내 돌봄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시기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 (특히 아내)는 남편의 목회 사역 일정에 따라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고, 이는 정서적 고립감과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

[9] 김충진, "기독교대한감리회 1980 년대생 부교역자들의 목사 안수 포기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23), 6.

[10] 정삼환,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는 목회자의 가정: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55.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3 세 이하 자녀를 둔 부담임목사 부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자녀의 발달, 부부 관계, 그리고 목회 사역의 구조적 긴장이 가장 선명하게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구 자료는 동료 부담임목사 부부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경청하는 심층 면담 과정을 통해 수집되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개인들의 체험의 공통 의미를 기술해 내는 방법을 활용한 연구이다.[11] 다시 말해 현상학은 무엇을(what) 경험하였는지와 어떻게(how) 경험하였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경험의 본질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회와 부담임목사 가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형성되고 해결될 수 있는지를 탐구했다. 이를 통해 교회와 부담임목사 가정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 모델을 제시하였다.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실제로 감당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교회는 부담임목사 가정의 안정을 지원해야 하며, 그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보장뿐 아니라 정서적 배려, 시간적 여유, 사역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목회자의 가정이 안정적이고 건강할 때 부담임목사는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콜라이찌(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다.[12] 이 접근은 연구 참여자의 진술로부터 핵심 의미를 도출하고, 이를 주제 범주로 통합하여 현상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자녀 양육 경험을

---

[11] Creswell, *질적연구방법론*, 102.
[12]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6.

그들의 주관적 세계 안에서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 스트레스 애착 형성 등의 심층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회 사역과 가정생활,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담임목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둘째, 동료 부담임목사들과 사역 분담과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셋째,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부 관계 갈등이다. 연구자는 이들과 동일한 3 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며 부담임목사로 사역한 경험을 가진 연구자로서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서술에 내재된 의미를 보다 정교하게 해석하고, 부담임목사 부부가 경험하는 현실적, 정서적 긴장을 현상학적으로 조명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본 연구는 상호의존성 이론(Interdependence Theory)을 적용하였다. 상호의존성 이론에 대해 김영철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 방식과 이를 위한 윤리적인 삶의 실천"[13]이라고 하였다. 김혜란은 "취약성은 모든 인간이 지닌 보편적 조건이며, 개인의 취약성은 자신뿐 아니라 타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14]고 말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서로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곧 상호의존성을 요구하는 자리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이 관점을 토대로 부담임목사 가정의 자녀 양육 환경을

---

[13] 김영철,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설교를 향하여: 제 29 회 장신설교대회 참가자들의 설교 예화에 관한 질적 연구"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19), 28.

[14] 김혜란,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상호의존성: 포스트여성주의 실천신학*, trans. 이호은 (서울: 동연, 2020), 42-3.

해석하고, 교회 사역이라는 외적 요인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해석을 위해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을 적용하였다. 대상관계이론은 전통적인 정신분석 이론에서 발전한 심리학적 이론으로, 인간 발달과 심리 문제의 근원을 초기 대상(주로 부모, 특히 어머니)과의 관계에서 찾는 이론이다. 정신분석이 무의식적 갈등과 정신 구조의 발달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상관계이론은 특히 인생 초기의 대상관계가 개인의 심리 발달과 자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즉, 유아기부터 형성된 대상(사람)과의 내적 관계가 이후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심리구조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15] 이은주는 대상관계이론이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근원적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이며, 다른 상담 이론들보다 종교적 주제에도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어 목회 상담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16]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대상관계이론이 자아 형성과 발달 과정에서 초기 대상, 특히 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내재화하는가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7] 본 연구는 대상관계이론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상호 작용과 애착 형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역동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리-개별화 과정을 포함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을 바탕으로 3 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을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정서 발달과 부모의 목회 사역

---

[15] 최종혁, 장안기, and 한성희, "정신분석에서의 대상관계이론," *임상연구논문집* 12 (1999): 25.

[16] 이은주,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 및 신앙의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Winnicott 이론을 중심으로" (MA thesis, 총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15), 2.

[17] 이은주,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 및 신앙의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2.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회와 부담임목사 가정 간의 건강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부담임목사 가정의 안정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목회 지원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 관련된 문헌자료의 검토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목회와 육아 경험, 부담임목사 부부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기존 연구가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DBpia,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 감리교신학대학원 도서관, 그리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박사 논문 등을 폭넓게 조사하였다. 선행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에 비추어 깊이 있는 연구를 소개하고, 나의 공헌과 독창성은 이 개별 주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문헌 자료 검토는 세 가지의 주제로 체계를 갖추어 선행 연구를 찾아보았다. 첫째로, 목회와 육아 경험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부목사의 삶에 관련한 연구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해석의 이론이 되는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지난 10 년 동안 정리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1. 목회와 육아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 (Previous Studies on Pastoral and Parenting Experiences)

목회와 육아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자녀 양육 스트레스, 부모 역할, 가족 관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종교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일부 존재하나, 그 대부분은 담임목사 가정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담임목사 가정을 연구 참여자로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한국 교회 내에서 담임목사에 비해 부담임목사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아동 양육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였으나, 부담임목사를 연구 참여자로 설정한 질적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3 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담임목사 부부의 양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담임목사 부부의 삶과 목회 사역, 그리고 자녀 양육 과정은 목회자 가정의 전반적 이해를 위해 반드시 탐구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인식하고, 부담임목사 부부의 목회와 육아 경험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목회자 연구가 다루지 못한 가정과 사역의 교차 지점, 역할 갈등, 정서적 경험 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2. 한국교회 안에서 부목사의 삶에 관련한 선행 연구 (Previous Studies on the Lives of Associate Pastors in the Korean Church)

본 연구는 3 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부담임목사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안승철은 "부목사의 역할과 기능은 단순히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18]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담임목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로 인식되는 반면, 부목사는 "교회나 담임목사에 의해 고용된 일꾼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19]라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부(담임)목사가 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에 따르면 "부목사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9.8 시간으로 거의 10 시간에 달하며, 일반 직장인보다 길며, 주 6 일 가까이 근무하는 것"[2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담임목사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18] 안승철, "목회협력자로서 부목사의 역할 연구" (DMin project,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4), 44.

[19] 안승철, "목회협력자로서 부목사의 역할 연구" 1.

[20] 지용근, "[통계로 교회 읽기] '부목사가 보는 한국교회: 부목사 하루 9.8 시간, 5.7 일 근무!'," *문화선교연구원*, August 30, 2022, https://www.cricum.com/future/?bmode=view&idx=12722714.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교회 내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종교적인 맥락에서 목회자 가정은 교회 공동체의 관심과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독특한 긴장을 경험한다. 최상호는 "목회자는 반드시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보여야 하며, 성도들은 언제나 목회자의 가정생활을 주목하고 있다"[21]라고 강조하였다. 고현숙은 성도들이 부교역자에게 기대하는 리더십이 "교회의 행정과 교육 수준 향상에 있으며, 담임목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이 요구된다"[22]고 분석하였다. 이는 부담임목사 부부가 단순히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대와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또한 김영은은 "목회자의 자녀가 일반 자녀보다 더 엄격한 시선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23]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부담임목사 부부들은 자녀의 행동이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평가받으며, 그로 인해 남편이 교회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24] 이러한 불안은 양육 스트레스를 심화시키고 심리적 탈진(Burnout)으로 이어져 사역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기윤은 "목회자는 교회 사역에는 헌신적이지만,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정서적으로 무심하거나 냉담해질 수 있다"[25]고 지적하였다. 현유광 역시 목회자의 탈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남성 목회자의 억눌린 분노가 가정 내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26]고 분석하였다.

---

[21] 최상호,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목회적 관계" (ThM thesis,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8.

[22] 고현숙, "21 세기 한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교역자 리더십 연구" (ThM thesis,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9), 83.

[23] 김영은, "목회자 아내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MA thesi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17.

[24] 김영은, "목회자 아내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17.

[25] 이기윤, "남성 목회자의 우울증에 대한 연구" (MA thesis,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2008), 19.

[26] 현유광, *갈등을 넘는 목회*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51.

담임목사와 달리 부담임목사는 교회 운영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 불안과 심리적 긴장이 더욱 크며, 이는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빠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데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육아의 대부분을 전담하게 되고, 신체적, 정서적 피로로 인해 부부 갈등이 심화된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 결과, 부담임목사 가정의 삶과 양육 경험은 학문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영역임이 드러난다.

3.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 (Previous Studies on Interdependence Theory and Object Relations Theory)

본 연구는 3 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을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의 틀에서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부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과 출산을 마친 목회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담임목사 부부는 결혼과 자녀 양육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부모로서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남편인 부담임목사가 교회 사역에 상당한 시간을 갖게 되므로 배우자가 자녀 양육의 대부분을 전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부는 심리적, 정서적 불균형을 경험하며, 이는 상호의존성 관계와 대상관계적 역동의 분석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부담임목사 부부의 자녀 양육 경험을 상호의존성 이론, 대상관계이론, 또는 애착 이론의 틀에서 종합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일반 부부의 관계 만족도나 부모-자녀 간 애착에 초점을 두었으며, 목회자 가정과 같은 종교적, 구조적 특수성을 지닌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공백을 메우고, 목회자 가정이 경험하는 관계적, 정서적 역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학문적 의의를 두었다.

한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맥락 속에서 부모의 양육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보고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지원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윤희는 “보육비, 교육비,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정 내 역할 갈등이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27]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는 심리적 측면에서 출산 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양숙경은 “어머니의 분리 불안이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28]고 밝혔으며, 이정순은 “양육 스트레스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적되고 지속되는 일상적 스트레스”[29]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절대적 의존과 분리 불안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자녀 양육이 경제적, 심리적인 측면 모두에서 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현실이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목회자 부부, 특히 부담임목사 가정의 양육 경험과 정서적 역동을 상호의존성과 대상관계이론의 틀에서 조명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한 양육 경험의 기술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목회 사역 구조가 부모-자녀 관계와 부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

[27] 최윤희 and 원숙연, “자녀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 29, no. 3 (2020): 104.

[28] 양숙경 and 문혁준,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 관계가 만 1,2 세반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8, no. 2 (2010): 133.

[29] 이정순, “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 no. 2 (2003): 184.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실과 양육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부담임목사 부부의 자녀 양육 경험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교회 내 목회자 가정 지원 시스템과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D.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Definitions of Key Terms)

1. 부담임목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교역자라는 용어는 교회 내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를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사역의 분업화를 위해 부교역자를 두는 경우가 있다. 부교역자는 "교역자를 보조하는 자로, 통상 담임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고 보필하는 부목사나 전도사를 가리킨다"[30]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부교역자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담임목사의 사역을 지원하는 전임 사역자를 '부담임목사'라고 칭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담임목사란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교회 내 다양한 목회 사역을 수행하는 부목사 전반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성별을 한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일부 교단에서는 전통과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부담임목사의 직분을 남성에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관행을 고려하되, 연구 참여자의 선정과 용어 사용에 있어 성별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2. 저출산

저출산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인구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자녀 수가 줄어드는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를 불러온다. 출산율이

---

[30] 가스펠서브,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439.

낮아질수록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곧 국가의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진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며,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동시에 한국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향후 30년 이내에 생산 가능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인구가 더 많아지는 인구 역전 현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재의 한국 사회는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3. 육아 분담

육아 분담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부가 어떻게 나누고 협력할 것인지를 뜻한다. 자녀를 돌보는 일과 그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과정에서, 부부는 자녀 양육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합의하고 역할을 정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편이 경제 활동을 통해 가계를 부양하고, 아내가 주 양육자로서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외벌이 가정이 흔했다.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 분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2*에 따르면, “전체 유배우자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30대와 40대에서 특히 높다”[31]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2021년 *지역별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연령대별 맞벌이 비율은 40~49세가 55.1%로 가장 높았으며, 30~39세가 53.3%, 50~64세가 5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육아 분담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자녀 돌봄을 위해 보모를 고용하거나 조부모가 공동 양육자로 참여하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

---

[31]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2* (서울: 통계개발원, 2022), 85.

4. 분리 불안

분리 불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특히 어머니가 자녀와 떨어질 때 경험하는 마음의 불안을 뜻한다. 양숙경은 “어머니의 분리 불안은 자녀를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 슬픔, 근심 등의 불편한 감정을 반영하는 심리 상태”[32]라 설명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정서적 고통을 가리킨다. 유아의 입장에서 볼 때,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공동 양육자인 어머니와 분리되는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유아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며, 이러한 분리는 유아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로널드 페어번(W. Ronald D. Fairbairn)의 ‘격리 불안(Isolation Anxiety)’은 공동 양육자(대상)와의 일시적인 분리나 좌절 경험에서 생겨나며, 아동이 내면화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양가적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페어번은 이러한 좌절과 격리가 아동의 정신 구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33] 또한 마가렛 말러((Margaret Mahler)는 ‘분리-개별화 과정(Separation-Individuation)’에서 아빠의 안정적 정서 개입이 부족할 경우, 유아는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며 불안정 애착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였다.[34]

E. 청중 (Intended Audience)

본 프로젝트의 주요 청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 본인’이다. 본 연구는 부담임목사로 사역하며 3 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실제 이야기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과정을

---

[32] 양숙경,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 관계가 만 1,2 세 반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133.

[33] 최종혁, 장안기, and 한성희, “정신분석에서의 대상관계이론,” 31-2.

[34] Magaret S. Mahler, Fred Pine, and Anni Bergman,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유아의 심리적 탄생: 공생과 개별화*, trans. 이재훈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997), 71.

통해 연구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목회 사역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를 얻고자 한다.

둘째,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 내 '부담임목사들'이다. 이들은 자녀 양육과 사역을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개인적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고 건강한 목회와 가정생활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담임목사를 준비하는 '예비 목회자들'이다. 본 연구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사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부담임목사 직분의 현실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도록 돕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역자는 교회 사역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도 균형 있게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하는 목회의 길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회의 '성도들'이다.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부담임목사를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조하는 자로 이해하며, 전문성과 헌신을 기대한다. 그러나 부담임목사 역시 가정과 배우자를 둔 한 인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도들이 사역자 가정의 중요성과 부담임목사의 이중적 부담을 인식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부담임목사 가정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F. 연구의 한계와 제한성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이며, 수도권에서 사역하는 부담임목사로 한정하였다. 이는 연구 기간과 지면의 제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전국 단위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사역하는 부담임목사를 포함한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 참여자를 결혼하여 3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부담임목사 가정으로 제한하였다.

자녀 나이를 3세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생후 3년 간의 유아기 경험이 인간의 성격과 행동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35] 유아기는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자녀는 공동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독립성과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부모는 이 시기에 자녀 양육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부담임목사 가정이 경험하는 양육 과정의 어려움과 갈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주제와 범위가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 사역자를 포함한 다양한 부담임목사 가정을 참여자로 보다 폭넓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G.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 (Originality and Contribution)

자녀 양육은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부모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과정으로, 인간의 탄생과 성장에는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편적 경험을 종교적 맥락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연결하고, 특히 담임목사가 아닌 부담임목사의 가정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함으로써 독창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목회자의 특수한 역할과 종교적 환경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명하였다.

기존 문헌과 연구를 검토한 결과, 목회자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회 내 갈등 연구도 주로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부담임목사가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중적 역할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현실에 주목하였다. 특히 서열 중심의 목회 구조에서 부담임목사가 경험하는 역할 갈등과 가정 내 도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의 필요성과 구별성을 강조할 수 있다.

---

[35] 이은주,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 및 신앙의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8.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 연구 방법의 현상학적 접근법을 채택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사역 중인 부담임목사 부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부부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 자리에서 심층 면담을 진행할 수도 있었으나, 각자의 역할과 상황을 존중하기 위해 자료를 구별하여 수집하였다. 먼저 남편인 부담임목사들과 일대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내용은 녹음 후 클로버노트로 필사하였다. 이후 배우자에게는 본 연구 1장과 2장의 요약본과 함께 필사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하여 검토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공동 양육자로서 각자의 역할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보다 더 풍부하게 듣기 위한 차원에서 질적 연구의 심층 면담 절차에 공헌한 바가 있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회 사역과 가정생활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목회자 개인의 역할 갈등과 가족 내 심리적 도전을 동시에 조명함으로써, 목회자의 삶과 사역 간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에 기반한 연구 결과는 목회자 가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교회와 가정 간 균형을 도모하는 데 실천적, 학문적 기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 논지의 흐름 (Structure of Project)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자의 목회와 가정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용어 정의, 연구 목적과 범위,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점도 설명하였다.

제2장, 연구 방법과 절차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사역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부담임목사 부부 중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8쌍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하였다. 콜라이찌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적용하여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묶음,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제3장,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의 피드백에서는 IRB(기관윤리심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동 양육자인 부담임목사의 배우자(아내)로부터 추가 피드백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한 실제적 어려움, 스트레스, 갈등 상황을 청취하여 연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완하였다.

제4장, 질적 연구 결과 해석에서는 연구 결과를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상호의존성에서는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 간 비대칭적 권력관계와 동료 부담임목사 간 갈등을 해석하였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분리-개별화 과정과 애착 형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담임목사 부부와 공동 양육자가 경험하는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심리적으로 해석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자의 개인적 성찰과 배움을 바탕으로 교회와 교단, 그리고 목회자 가정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 간 관계 재정립, 교회의 가정 지원 정책 필요성, 부담임목사 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hapter II

연구 방법과 절차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A. 연구 방법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부담임목사 부부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3 세 이하 자녀 양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에서는 부담임목사 부부가 목회 사역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교회와 담임목사,' '동료 부담임목사,' '자기 자녀들,' '자신의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러한 경험이 목회적 삶과 가정생활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부담임목사 부부가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경험의 본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관점에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내재된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 연구는 현상을 연구 참여자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에 부여한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인간 경험의 본질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해석적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표현하는 인식의 주체가 된다.[36]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접근(Phenomenological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유기웅(2018)은 실증적 연구(Empirical Study)를 "현상을 수량화 하여 분석하는 양적 연구와, 참여자의 언어적 표현과 해석을 통해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질적 연구로 구분할 수

[36]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139.

있다"[37]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 주제가 종교적 특수성을 지닌 부담임목사 부부의 자녀 양육 경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내면적 경험과 정서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양적 연구'[38]보다는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콜라이찌(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적용하였다.[39] 이 방법은 연구자의 선이해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판단 중지 (Epoché),' '괄호치기 (Bracketing),' '현상학적 환원 (Phenomenological Reduction)' 등의 과정이 핵심적으로 작용한다.[40]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현상의 본질과 그 의미 구조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콜라이찌의 분석 절차를 토대로 부담임목사 부부의 자녀 양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 스트레스, 애착 형성, 관계적 긴장 등 다양한 심리, 정서적 경험을 참여자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B. 연구 참여자 선정과 기준 (Participant Selection and Inclusion Criteria)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사역 중이거나 사역 경험이 있는 부담임목사 부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라는 용어가 부목사, 전도사, 심방 전도사, 간사 등 다양한 직책을 포함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명확히 지칭하기 위해 '부담임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초기에는 부담임목사의 성별을 남성으로 한정할 계획이었으나, 연구

---

37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25.
38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2.
39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6.
40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61.

과정에서 여성 부담임목사이자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참여자가 포함되면서, 남녀 모두를 포함한 부담임목사 부부로 선정 기준을 확장하였다. 결혼 형태는 기혼 가정뿐 아니라 재혼 가정도 포함하였다. 최종 선정 기준은 자녀를 출산하고 실제로 양육 경험이 있는 부담임목사 부부로 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자녀의 나이는 3세 이하로 제한하였다. 이는 대상관계이론 관점에서 생후 0~3세를 리비도(Libido) 욕구 형성의 중요한 시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인간의 초기 애착 형성과 정서적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임을 반영한다. 3세 이하의 유아는 공동 양육자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며,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는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Stranger Anxiety)을 나타낸다.[41] 이 시기의 장기간 분리는 주요한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42]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은 이러한 애착 관계를 단순한 정서적 유대 차원을 넘어, 내면적 심리 구조 형성의 핵심으로 이해하였다. 아동은 어머니와의 경험을 통해 자기와 세계에 대한 기본적 표상을 내면화하며, 동시에 유아는 모성을 좋은 젖가슴(The Goof Breast)과 나쁜 젖가슴(The Bad Breast)으로 내면화한다고 설명하였다.[43]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은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기인하지만, 유아는 이를 분리된 대상으로 경험한다. 이는 초기 심리 발달에서 나타나는 분열(Splitting) 기제를 반영한다.[44] 유아는 성장하면서, 같은 어머니가 때로는 만족을, 때로는 좌절을 제공하는 동일한 존재임을 점차 이해하게 된다. 즉, 부분 대상을 분열된 상태로 경험한 단계를 지나 이를 통합하여

---

[41] 전혜선, "모성의 부재와 대상관계이론: 토니 모리슨의 「가장 슬픈 눈」, 「술라」,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를 중심으로" (PhD diss.,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17.

[42] John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존 볼비의 안전기지*, trans. 김수임, 강예리, and 강민철 (서울: 학지사, 2014), 177.

[43] 최종혁, 장안기, and 한성희, "정신분석에서의 대상관계이론," 29.

[44] Melanie Klein, "Notes on Some Schizoid Mechanism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7 (1946): 99.

전체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 과정은 자아 성숙과 안정적인 애착 형성, 자기와 타인에 대한 통합적 표상 형성에 필수적이다.

한편,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초자아 형성이 유아 후기 또는 아동기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클라인은 초자아가 생후 첫해부터 형성되며, 이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죄책감, 공격성, 사랑과 미움의 양가 감정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45] 이러한 관점은 정신분석학을 성적 발달 중심에서 대인관계 중심으로 확장하며, 유아 초기 경험이 정신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소속의 부담임목사 부부로,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실제로 양육 경험이 있는 이들만 포함하였다. 사역 지역은 수도권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는 연구자가 비슷한 환경과 조건에서 사역하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35~40세로 제한하였고, 자녀 양육 경험은 10년 이하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연구 기간과 일정상의 제약으로 8쌍 중 5쌍만이 이 조건에 부합하여 연구의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기준은 양육 경험이 오래될 경우 기억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첫째 아이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8쌍의 부담임목사 부부로 계획하였으나, 심층 면담 과정에서 일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3장에서 다룰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의 피드백에는 7명만 참여하였다. 심층 면담 결과,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 간의 나이 차이가 가정과 교회 내 갈등의

45 Klein, “Notes on Some Schizoid Mechanisms,” 99.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되었으며, 나이 차이가 클수록 부담임목사가 경험하는 갈등의 깊이가 더 큰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부담임목사 가정의 자녀 양육 경험과 교회-가정 간 상호 작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목회적 삶과 가족 생활의 상호 작용에 대한 학문적 기여를 도왔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구분	현재 나이	자녀 성별	본인 성별	사역 장소	사역 연수	자녀출산 연도	담임목사 연령대
연구 참여자 1	36세	딸	남	서울	5년	2015	50대 후반
연구 참여자 2	37세	딸	남	서울	6년	2019	60대 후반
연구 참여자 3	45세	딸	남	서울	8년	2013	60대 후반
연구 참여자 4	36세	아들	남	서울	7년	2016	60대 후반
연구 참여자 5	48세	딸	남	서울	14년	2004	50대 후반
연구 참여자 6	40세	아들	남	수원시	4년	2011	60대 후반
연구 참여자 7	36세	딸	남	인천	7년	2016	60대 후반
연구 참여자 8	45세	딸	여	서울	3년	2013	50대 후반

C. 자료 수집과 연구 윤리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Ethics)

1. 자료 수집 방법 (Data Collection Methods)

현상학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인터뷰, 관찰, 참여 경험 기록, 연구 주제 관련 문헌 수집 증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이 중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이다.[46] 본 연구의 자료 역시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은

[46]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149.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그들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방식이다.[47] 김영천은 심층 면담을 연구 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설명한다.[48]

본 연구에서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질문들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부담임목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동안 어떤 어려움과 불안함을 경험하는가?' '담임목사의 지시에 불응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갈등을 경험하는가?' '고용 불안이나 사역지 이동으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부담임목사 부부가 교회 사역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목적과 방법,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안내한 '연구참여동의서 (부록 A)'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미리 준비한 면담 가이드 질문을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이 있는 연구 참여자의 반응을 끌어내고자 '반구조화 면담'[49] 방식으로도 진행했다. 김영천은 *질적연구 방법론 I*에서 "반구조화 면담은 연구자가 만든 면담 가이드에 의해 면담을 진행하되 면담자가 범할 수 있는 면담상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배제한 면담이라"[50]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에서 보다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의 내적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심층 면담 과정에서 부부가 동시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므로, 연구자는 우선

---

[47] 김영천, *질적연구 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562.
[48]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6), 323.
[49]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326.
[50]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 326.

부담임목사와 면담을 진행한 뒤 그 내용을 배우자에게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수도권 지역 부담임목사 부부의 사역 경험과 자녀 양육 경험을 효과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층 면담의 시간을 50분 이내로 제한하였다. 다만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었으며, 면담 종료 후에도 추가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반드시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스마트폰(모델명: 갤럭시S20)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기록하였고, 녹음 자료는 자동 필사 프로그램(클로버노트)을 활용하여 필사하였다. 이후 필사본은 참여자와 함께 재확인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보완하였다.

2.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Ensuring Credibility and Trustworthiness)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과 동료검증법(Peer Examination)을 활용하였다. 삼각검증법은 다수의 자료, 다수의 방법, 다수의 조사자, 다수의 이론 등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51]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편형을 최소화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견고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동료검토법은 연구 분석 자료와 연구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동료 3~5명을 선정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검토자는 질적 연구 방법, 자료 해석, 연구 목적과의 관련성, 제시된 연구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었는지 등을 평가하며,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2] 동료 검증 과정을 통해

---

[51]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402.
[52] 유기웅 et al.,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397.

수집된 피드백은 〈부록 C〉에 첨부하였다.

3. 윤리적 고려 (Ethical Considerations)

본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윤리심사위원회(IRB)의 지도와 감독 하에, 윤리적 보호 조치 (2024-003)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모든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면담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본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녹음 파일과 전사 자료는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였고, 연구 종료 후 문서 세단, 디지털 파일 삭제, 영상 기록 폐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언제든 연구 자료 제공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와 같은 절차와 윤리적 고려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위한 면담 가이드 질문(Interview Guide Questions)을 구성하였다. 본 면담 질문은 부담임목사 부부가 교회 사역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체적 상황과 갈등을 탐색하고, 그 내재된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면담 가이드의 구성은 제1장에서 제시된 연구 질문을 근거로 하여 도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 사례와 감정적 맥락 속에서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 형태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첫째, 부담임목사가 교회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는가? 둘째,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르지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갈등이 발생하는가? 셋째, 고용 불안이나 사역지 이동으로 인해 배우자와 자녀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과 그 경험에 부여된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적합한 질적 연구 도구로

기능하였다. 또한 현상학적 접근의 핵심 원리에 따라, 연구자는 심층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선이해를 배제하고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세계에 내재된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면담 가이드 질문에 대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2〉 면담 가이드

1. 연구 참여자 기본정보 (해당 질문에 기입을 하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이 (   ), * 성별(남/여), * 사역 연차 (   )년 * 사역한 교회 규모 (1) 200명~500명 (2) 500명~1000명 (3) 1000명 이상 * 가족 구성원 (1) 자녀 1명 (2) 자녀 2명 (3) 자녀 3명 * 자녀 성별 (1) 남자만 (2) 여자만 (3) 남자, 여자 둘 다 있음.
2. 부담임목사로 사역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불안함을 경험하셨습니까?
3.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르지 못했을 때 갈등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4. 사역지 이동 또는 고용 불안이 가정이나 자녀 양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들려주십시오.
5. 교회 사역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면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겪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6. 자녀가 3세 이하일 때 양육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7. 교회와 성도들의 시선이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려주십시오.
8. 동료 부교역자들과의 관계에서 자녀 양육이나 가정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나 부담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9. 부담임목사로서 가정과 사역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과 그 해결을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10. 자녀 양육에 있어 신앙적, 목회자적 정체성이 미친 영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면담 가이드를 활용하여 부담임목사 부부가 교회 사역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면서 경험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연구의 심층적 분석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분석에 있어 "콜라이찌(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53]를 적용하였다. 이 절차는 참여자의 경험에서 본질적 의미를 추출하고, 그 본질을 심층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구체적 단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3〉 콜라이찌 현상학적 분석 절차

No	내용
1	참여자들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어 전체적인 맥락과 느낌을 파악한다.
2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의미 있는 구절(Statement)을 추출한다.
3	의미 있는 진술들을 묶어 주제(Cluster of Themes)를 도출한다.
4	도출된 주제들을 기반으로 연구 현상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기술(Description)을 작성한다.
5	완성된 기술을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하고 그 타당성(Member Checking)을 검증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부담임목사 부부의 자녀 양육과 교회 사역 경험 속에서 드러난 중심 현상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자의 선입견과 경험이 참여자의 경험 해석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53] 김영천, *질적연구 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107.

‘판단 중지 (Epoché)’[54] 개념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사전에 자신이 지닐 수 있는 선 이해를 의식적으로 성찰하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러한 선입견이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사전에 명확히 인식하고, 연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판단을 유보하였다.

〈표 4〉 판단중지 내용

No	내용
1	부담임목사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 후회할 것이라는 추정
2	첫째 자녀 양육이 더 어렵다는 일반화된 경험
3	교회 구조 속에서 부담임목사가 반드시 담임목사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4	사역은 곧 헌신과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신념
5	연구자의 개인 경험을 참여자의 경험에 투영하는 태도 등을 미리 인식하고 보류함
6	자녀 폭력이나 학대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부정적 판단
7	정신적, 심리적 문제에 대한 섣부른 해석
8	유교적 위계질서가 당연하다는 인식 배제

이러한 판단 중지 항목(표 4를 참조)을 토대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그들의 경험을 충실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3세 이하 자녀 양육 경험이라는 특정 상황을 공통적으로 지닌

[54] “판단 중지(Epoché)는 후설이 가정으로부터의 해방, 판단 중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그리스어이다. 이는 멀리 떨어뜨려 놓음 혹은 억누름을 뜻하는 말로 우리 말로 흔히 판단 중지라고 일컬어지는데,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것에 긍정 혹은 부정과 같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95.

연구 참여자들을 선정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범주화 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 내재된 중심 현상과 그 본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D. 연구 결과와 분석 (Research Findings and Analysis)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필사본을 교차 검토한 후 콜라이찌(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25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5개의 주제로 묶었다. 나아가 이들 주제를 다시 통합하여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범주는 다음과 같다.

〈표 5〉 콜라이찌 연구 방법 분석 범주

범주	내용
첫번째 범주	목회자 간 권력 관계와 역할 갈등
두번째 범주	부담임목사 자녀 양육과 경제적 압박
세번째 범주	목회 사역과 부모 역할의 갈등
네번째 범주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해결의 한계

각 범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목회자 간 권력 관계와 역할 갈등은 부담임목사가 담임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권력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갈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범주인, 부담임목사 자녀 양육과 경제적 압박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목회자의 현실적 경제 여건에서 비롯되는 압박과 어려움을 반영한다. 세 번째 범주인, 목회 사역과 부모 역할의 갈등은 교회 사역과 가정 내 부모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부담임목사의 역할

충돌을 보여준다. 네 번째 범주인,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해결의 한계는 부담임목사 부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갈등 조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와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부담임목사 부부가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중적 공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압박, 그리고 그로 인한 정서적, 심리적 반응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진술과 주제별 묶음은 〈부록 B〉에 첨부하였다.

1. 범주 1: 목회자 간의 권력 역학과 역할 갈등 (Category 1: Power Dynamics and Role Conflicts Among Pastors)

첫 번째 범주는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속성과 역할 오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부담임목사는 원칙적으로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에 따라 사역을 조력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담임목사의 사적인 요구까지 포함한 부당한 업무 분담이 발생하였다. 이는 교회 내에서 부담임목사를 목회 동역자가 아니라 사적 고용인으로 인식하는 권력 주조의 한 단면으로 분석된다.

〈연구 참여자 4, 6, 7〉의 진술에서 확인되듯이, 부담임목사는 교회 시설 관리, 개인적 심부름, 사택 관리까지 요구받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 4〉는 자신을 교회의 머슴으로 느끼며 목회자로서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6〉은 가족과 외식 중에도 목양실 창문을 닫으라는 담임목사의 지시로 인해 가정의 시간을 포기해야 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연구 참여자 7〉은 담임사모와의 관계에서 위계적 태도를 경험하며, 가정과 사역 사이에서 심리적 위축을 경험했다.

> 〈연구 참여자 4〉
>
> 나는 사역하는 동안 교회의 머슴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담임목사로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즉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그 외의 일들, 즉 컴퓨터를 고치거나, 교회로 온 택배를

분류하거나, 화장실 청소, 강아지 사료를 챙기는 일까지 시키는 등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목회자인가? 아니면 관리 집사인가? 하는 정체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잘리지 않고,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오랫동안 옮기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그냥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6〉

가족들과 함께 교회 업무가 마감된 시점에 같이 식사하러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 내가 밖에 나와 있는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목양실 창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지금 내가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일정 끝나고 가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지금 당장 빨리 들어가서 목양실의 창문을 내려놓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의 식사를 접고, 교회에 들어가서 목양실에 들어가 창문을 닫고 집으로 그냥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또한 어린 자녀들에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었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어떻게 되어서 함께 외식하려고 나갔었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되니까… 그러고 이게 무슨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 직원(사무실 직원)을 시켜도 되는 일을 부목사에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참여자 7〉

자녀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교회에 언제 가야 할지 아내가 담임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전화하셨군요' 하면서 '알아서 나오면 되지, 그런 일로 전화를 하냐?'고 하셔서 적지 않게 당황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담임사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었고, 담임사모님께 전화가 오면 안절부절못하게 되는 아내를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역 우선 문화는 부담임목사의 가정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연구 참여자 2〉는 자녀가 응급실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담임목사의 공항 의전을 수행해야 했던 경험을 나누었다. 〈연구 참여자 4〉 역시 아내의 출산 당시 심방 일정을 연기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가족 곁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을 토로하였다.

〈연구 참여자 2〉

남편으로서는 나름대로 교회 일에 대해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응급실에서 아내와 같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담임목사님이 공항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보통 담임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아이가 아파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내일 공항까지 의전을 하는 일에 힘이 들 것 같습니다'하면 되는데 그런 다른 부목사들과의 관계로 인해 그런 분위기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밤새 병원에 있다가 새벽에 교회로 다시 들어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다시 병원으로 와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4〉

아내가 둘째를 출산할 당시 교구 심방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그때 나는 첫째 아들과 아내를 아버지, 어머니에게 맡기고 심방을 가게 되었는데 담임목사님이나 다른 부목사들에게, 그리고 심방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출산하는 아내를 놔두고 심방을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심방을 연기하고 출산하는 아내 옆에 있고 싶다는 말할 수 없었고, 아내에게 지금까지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역할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목사의 권력 우위와 사역 우선 문화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낸다. 부담임목사는 교회 사역에 절대적 순응을 요구받으며, 가정과 자녀 돌봄에서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받았다. 연구자 자신 또한 목회 현장에서 교회가 가정보다 우선한다는 신념에 익숙했음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신념이 어떻게 부당한 희생과 종속적 구조로 이어지는지를 재해석하게 되었다.

2. 범주 2: 부담임목사 자녀 양육과 경제적 압박 (Category 2: Child-Rearing and Financial Pressures Among Associate Pastors)

심층 면담 결과,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교회로부터 지급되는 생활비는 가정 유지와 양육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사역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주거 비용, 양육비, 공과금 등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일부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지원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다. 일부 참여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목회 외적인 아르바이트 (배달, 대리운전, 포장 업무 등)를 통해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목회자로서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기도 했다.

또한 부담임목사 부부는 성도들의 시선과 평가로 자녀 양육 선택이 제한받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 7〉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임목사로 사역하는 동안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생활 형편이 나은 편이었다. 그래서 교회에 갈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 준 옷을 입혀서 교회에 데려가면 교인들이 '부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아이에게 저런 옷을 입힐까?' 하는 시선을 받았다'고 하였다.

> 〈연구 참여자 7〉
>
> 내가 인천에서 부담임목사를 7년 정도 하면서 성도들이 저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이고,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를 곡해하는 성도들이 있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 가는 주일에 아이에게 '커리수' 라는 메이커의 옷을 입혀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를 반겨주면서 옷을 보면서 이 옷 비싼 옷인데 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다른 편으로 듣게 되었는데 '부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아이에게 그렇게 비싼 옷을 입혀'하는 소리로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안 될까, 본인들은 다 좋은 옷, 비싼 옷을 입히면서 사역자의 자녀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연구 참여자 2〉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 아이가 약간 자라면서 유치원에 갈 때가 되었는데, 근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없어서 근처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다 보니, 월 원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도 고민은 했지만, 저희는 자녀가 1명뿐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선교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료 부목사님들이 거기 비싼데, 하면서 생활이 조금 되나 봐… 하며 비아냥거리는 것이 듣기에 거북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담임목사 가정은 교회로부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크게 경험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성도와 동료 사역자의 평가가 자녀 양육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부모로서 죄책감과 정체성애 혼란을 주었다. 결국 자녀 양육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 시선과 평가 속에서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식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3. 범주 3: 목회 사역과 부모 역할의 갈등 (Category 3: Conflicts Between Pastoral Ministry and Parenthood)

부담임목사들은 교회 사역에 전념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아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과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에서도 아빠로서 자녀를 돌보기를 원하지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사역 일정으로 인해 자녀에게 정서적 부재의 아빠로 남는 현실을 토로했다. 특히 유아기 자녀는 아빠를 부담임목사가 아닌 한 가정의 아빠로 인식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인식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아빠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현실을 정체성 박탈로 경험하였다.

> 〈연구 참여자 1〉
>
> 첫째 딸이 저랑 자다가 제가 중간에, 새벽에 나와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가려고 일어날 때마다 살살 나와야 하는데, 그 인기척에 아이가 깨는데, 그 옆에 아빠가 없잖아요. 그 애 나름대로 엄청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저한테 '아빠 내일은 일찍 나가지마,' '아빠, 내일은 교회 가면 안 돼' 하면서 항상 물어보고 잠을 잤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일단 아이한테 얘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살살 일어나고,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구 참여자 1〉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심층 면담을 한 연구 참여자였다. 연구자인 나 역시 같은 아빠의 관점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러면서 〈연구 참여자 1〉은 '교회 안에서 아빠의 역할이 거세당한 느낌'이라고 하였다. 부담임목사의 일상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위해 사역을 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부담임목사가 사역하는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가 아닌 약간 중대형 교회이므로 교회 행정과 심방 사역과 설교와 예배를 위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내도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나 역시 부담임목사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마찬가지였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내와 자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의 관점에서 아내와 자녀가 얼마나 그립고, 소중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집에 들어와도 육아로 지친 아내를 도우려는 마음과 달리,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곧바로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구 참여자 4〉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 부담임목사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먼저이다 보니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어요. 특히 새벽에 일찍 나가 새벽예배를 매일 드리고, 잠시 집에 들어와서 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어요. 새벽에 분유 먹이고, 트림시키고, 재우고를 반복하게 되는 신생아기 때에는 잠을 편히 자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돌아가면서 새벽에 쪽 잠을 자면서 아이를 돌보고 부담임목사인 나는 새벽예배를 밤새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항상 예민하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부담임목사들은 목회 사역과 부모 역할이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교회 사역의 우선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부모로서 역할 수행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서적 거리감과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기 자녀의 정서적 요구를 인식하면서도 응답하지 못하는 현실은 목회자 스스로에게 심리적 자책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아빠로서 역할이 무시되는 정체성 상실로 이어졌으며, 부담임목사들은 자신을 부재한 아빠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범주는 부담임목사가 사역자이자 부모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목회적 환경이 자녀 양육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로 해석된다.

4. 범주 4: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해결의 한계 (Category 4: Limitations in Stress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을 스스로 감내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거나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부담임목사의 아내는 남편이 교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인의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를 내면화하거나, 일시적인 탈출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연구자는 인지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 1〉의 경우는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당한 불이익에 대해 어떤 항의를 하지 못한 채 어린이집을 조용히 떠난 일도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 5〉의 경우는 '예배의 자리에 가족과 함께 앉아 있는 성도들과 달리 홀로 아이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그 옆에 가서 앉고 싶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부담임목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가족보다는 교회가 우선이고, 사역이 우선이고, 성도들의 시선을 인식해야 했다. 그래서 부담임목사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찾아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또한 부담임목사가 가정과 교회의 딜레마 안에서 경험하는 고뇌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음을 연구자는 확인하였다.

이처럼 부담임목사 부부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아내들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감내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한편 남편인 부담임목사는 자녀 양육 과정을 아내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양육의 책임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연구 참여자 1〉은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 할 때, 낯선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교회 주변의

마트보다는 좀 더 거리가 있는 마트를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아내가 아이와 함께 약 100일 정도 친정에 머물며 친정 어머니가 해주시는 식사를 하고, 아이 양육에서 조금이나마 해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2〉도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양육 부분에서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결국 서로 지치면서 그 원칙이 깨졌다. 이후, 깊어진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부부의 삶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연구 참여자 부부의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대화와 일시적 배려로 상황을 넘기고 있었으나,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해결되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관계의 질은 점차 악화하고 있었다. 특히 남편인 부담임목사는 목회 사역을 우선시하며,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배우자는 양육 부담을 심리적 억압과 고립 속에서 감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네번째 범주는 부담임목사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목회 사역의 이중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갈등 해결책이나 돌봄과 지원이 부재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Chapter III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의 피드백

(Feedback from the Spouse as Co-Caregiver)

본 연구의 1장과 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에서 부담임목사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사역과 가정 생활 사이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심리적 어려움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을 중심으로, 그들이 직면하는 역할 갈등, 정체성 혼란, 심리적, 관계적 부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였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 위계적 목회 구조를 형성해왔다. 이 과정에서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시와 목회 방향에 종속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부담임목사에게 사역의 자율성 제약, 소명감과 실제 사역 간의 괴리, 권력 관계의 비대칭에서 비롯된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

한편 부담임목사는 사역 외에도 가정에서 남편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는 애착 형성과 정서적 안정이 결정되는 중요한 발달 단계로, 과중한 목회 일정과 불규칙한 근무 환경은 아빠로서의 돌봄 참여를 제한한다. 그 결과 부모 역할 분담의 불균형, 배우자의 양육부담 가중, 부부간 정서적 거리감 증가 등 다양한 가족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가 주로 담임목사의 리더십이나 교회 성장, 혹은 일반 가정의 양육 스트레스에 집중된 데 비해, 부담임목사의 가족 경험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영유아(0-3세)를 양육하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삶을 다룬 연구는 거의 부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부담임목사 부부의 실제

경험을 탐구하였다. 현상학은 참여자가 ‘무엇을 경험했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한 접근 방식으로, 경험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밝히는 데 유용하다. 연구 참여자는 수도권 지역에서 사역하며 영유아 자녀를 양육한 부담임목사 부부로 선정하였고, 배우자의 진술 또한 함께 수집하여 자료의 신뢰성과 공정성, 그리고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녹음, 전사 과정을 거쳐 의미 단위 추출, 주제 도출, 범주화의 절차로 분석하였다. 해석은 상호의존성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동일한 사역 환경과 가족 구조 안에 놓인 부담임목사로서 참여적 연구자의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 형성을 촉진하고, 연구자가 자신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도록 하여, 연구 자료가 단순한 진술의 집합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구조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는 생생한 자료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며, 부담임목사 가정의 복합적 경험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지금까지 2장에서는 주로 남성 목회자인 부담임목사들의 심층 면담 응답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3장에서는 배우자들의 피드백을 추가하여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균형을 맞추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윤리성을 확보하려는 연구자의 노력에 기초한 것이다. 배우자들의 피드백은 단순한 보조적 의견에 그치지 않고, 이들 역시 독립적인 연구 참여자로서 2장에서 다루어진 부담임목사의 응답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배우자들의 피드백은 연구 결과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동일할 수 있으나 상이할 수도 있는 부부의 실제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연구자가 활용하였다.

A. 피드백 참여자 선정과 자료 수집 방법 (Selection of Feedback Participants and Data Collection Methods)

피드백 참여자를 선정할 때, 2장에서 심층 면담에 참여했던 8명의 부담임목사들 중, 그들의 배우자(아내) 7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의 피드백 받았다.[55] 연구 참여자와 피드백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사용하였다.

〈표 5〉 피드백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

피드백 참여자	첫째 아이의 성별	성별(배우자)
연구 참여자 1	여아	여성
연구 참여자 2	여아	여성
연구 참여자 3	남아	여성
연구 참여자 4	남아	여성
연구 참여자 5	여아	여성
연구 참여자 6	여아	여성
연구 참여자 7	여아	여성

B. 피드백 자료 수집 절차 (Procedures for Collecting Feedback Data)

배우자들의 피드백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자가 정리한 1장과 2장의 요약본을 배우자들에게 전달하여 연구 목적과 취지, 그리고 2장에서 이루어진 질적 연구의 결과를 알렸다. 둘째, 이후 배우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질문을 이메일 서신으로 전달하고, 이메일을

[55] 연구 참여자 중 한 사례는 부부가 모두 부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2 장에서는 개인 단위로 8 명이 면담에 참여하였으나, 3 장에서는 가정 단위로 묶어 배우자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7 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통해 배우자들이 응답한 내용들을 연구 데이터로 수집하였다. 이처럼 2장의 연구 참여자들과는 대면으로 심층 면담을 한 것과는 다르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들과 이메일로 소통한 이유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고려하고,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생각하고 성찰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보다 용이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부부가 동석하여 대면으로 심층 면담을 함께 진행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먼저 부담임목사들을 먼저 심층 면담을 하고, 이후 배우자들의 응답을 경청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의 '4. 피드백 수집의 필요성'에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배우자들에게 연구자가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문 ① 남편이 교회 사역으로 바쁠 때,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담임목사의 배우자이자 자녀의 부모로서 경험하는 정서적·심리적 어려움과 주변의 시선은 어떠한가요?
>
> 질문 ② 자녀의 발달이나 행동과 관련해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며, 남편과 양육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겪은 갈등이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피드백 자료를 수집한 후, 내용이 중복되거나 공통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중복을 피하도록 정리하였고, 서로 구별되는 피드백 내용들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C. 윤리적 보호와 보안 (Ethical Safeguards and Data Security)

배우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윤리적 보호와 보안 조치를 시행하였다. 배우자들에게 2장에서 언급하였던 사전 동의서(부록 D 참조)를 제공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의 개인 정보와 자료는 노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였으며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다. 개인 정보와 수집 자료는 암호화된 파일로 관리하고, 본 연구 프로젝트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메일로 수집한 자료들과 개인 정보관련 자료들을 파기와 디지털 삭제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윤리 심사위원회(IRB)의 지도와 감독 아래 연구 번호: 2024-

003으로 승인받아 진행되었다.

D. 피드백 수집의 필요성 (Rational for Collecting Feedback)

2장에서 참여자는 대부분 남성이었다. 그래서 배우자의 경험과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 심사위원회(IRB)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목회자일 경우, 목회자의 배우자 관점이 배제된다면 연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드백 수집의 필요성은 여섯 가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인 부담임목사와 배우자의 역할 경험에 차이가 있다. 부담임목사는 교회 사역을 주된 소명으로 여기며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에 쏟는다. 반면 배우자는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갈등과 어려움을 훨씬 더 민감하게 경험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동일한 경험을 하였다. 이때, 남편은 목회 사역과 가정생활의 이중적인 모습에서 양육을 피하려 하고, 아내에게 자녀 양육에 더 신경을 쓰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상황을 알면서도 양육의 과중한 부담과 정서적 소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현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목소리를 포함하지 않으면 연구의 편향된 시각에 머물 위험이 크다.

둘째, 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이다. 실제로 본 연구가 IRB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목회자의 배우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목회자 본인만의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배우자의 경험이 연구 현상을 보완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드러낸다. 배우자의 피드백은 부담임목사 개인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한다.

셋째, 가정의 실제 상황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자녀 양육은 결코 개인의 과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과제이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임무와 경험이 자녀 성장

과정과 가정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담임목사는 교회에서 바쁜 사역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한되지만, 배우자는 자녀와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실제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피드백은 가정 내부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넷째,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균형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부담임목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사역과 가정이라는 이중 부담에서 비롯되지만 배우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은 남편의 부재, 육아의 고립감, 교회 공동체의 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측면은 부담임목사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배우자의 피드백을 통해, 연구자는 심리적 갈등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부담임목사 가정의 실제적 어려움을 다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실천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가치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넘어, 교회 공동체가 부담임목사 가정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담임목사 뿐 아니라 배우자의 실제 경험과 요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배우자의 피드백은 교회가 부담임목사 가정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양육 지원의 실질적 필요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기초가 된다.

마지막으로, 가족 단위의 목회적 돌봄 모델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부담임목사 가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 사회적 모델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 배우자의 피드백을 수렴함으로써, 목회자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총체적 시각에서 목회자 가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목회자 개인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목회자 가정 전체를 돌보는 새로운

목회적 돌봄 모델을 제시하는 기반이 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배우자의 피드백은 연구의 단순한 부가적 요소가 아니라, 연구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목회적 시사점과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핵심 자료이다. 부담임목사 가정을 이해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배우자의 경험과 의견을 함께 경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교회는 부담임목사 가정이 보다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동시에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 피드백 주요 내용과 내용의 분석 (Key Themes and Analysis of Feedback)

총 7명의 배우자들로부터 수집한 피드백들을 분석해보니 자녀 양육에서 경험한 정서적 어려움, 교회 내 스트레스, 그리고 배우자인 부담임목사와의 양육 갈등으로 나타났다.

1) 정서적 소진과 심리적 고립

〈연구 참여자 1〉의 피드백은 아이와 단 한 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20개월 시기에 모든 육아를 혼자 감당하면서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소진을 경험했다. 남편이 사역으로 지쳐 돌아올 때 분노와 외로움을 동시에 느꼈다. 〈연구 참여자 1〉의 피드백은 아래와 같다.

> 〈연구 참여자 1의 피드백〉
>
> 저의 아이가 20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든 엄마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엄마가 옆에 있어야 놀이하고, 잠시라도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한번 울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고, 엄마가 안아줘야 그때야 울음을 그칩니다. 아이가 크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남편이 알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밤늦게 돌아오면 나는 피곤함에 절어 있고, 남편도 피곤한데, 아빠가 왔다고 놀아달라는 아이를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전적으로 담당하며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남편의 목회를 돕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교회 안에서 부담임목사 자녀로 받는 시선

〈연구 참여자 3〉의 피드백은 아이가 말을 늦게 배우자 한 성도로부터 '부담임목사 자녀인데 왜 그러냐'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후 연구 참여자 3은 밤마다 울었다. 〈연구 참여자 4, 6, 7〉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자녀로서 유난히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이들의 사소한 작은 행동이 성도들 사이에서 '부모(목회자)의 양육 문제'와 연관해서 회자하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3〉과 〈4, 6, 7〉의 피드백은 아래와 같다.

> 〈연구 참여자 3의 피드백〉
>
> 저희 아이는 35개월이 될 때까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놀이하면서도 언어 표현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물어보면 겨우 응답하게 되었을 때, '부담임목사 자녀가 왜 말을 안 하지'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연구 참여자 4의 피드백〉
>
> 우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는 동안 먹을 것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잘 먹어야 잘 자라고 할 텐데 모유 수유를 해도 잘 안 먹고, 이유식을 해주어도 잘 안 먹고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체 발육 상태도 허약한 편이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교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이 가정(부목사님의 가정)은 걱정이 없겠네, 둘 다 키가 커서 아이들이 키는 클 것이라고 하는 말에 한쪽으로는 기분이 좋다가도, 아이가 먹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걱정되었습니다.

> 〈연구 참여자 6의 피드백〉
>
> 우리 아이가 20개월 되었을 때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고 곧바로 부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자녀는 귀여움에 성도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여름이 되어서 교회에서 청년들이 저희 아이를 안고서 땅에 내려놓지 않아 거의 일상을 청년들의 품에서 자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서 청년들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저희 아이에게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한 입만' 하여 청년에게 아이스크림 한 입을 물려주면, 저희 아이는 그 자리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땅에 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청년들이 놀라면서도 장난을 치면서 계속 실험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이 성격 테스트를 하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아서 집에서 교육해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성격이라 힘들었습니다.

〈연구 참여자 7의 피드백〉

우리 아이가 25개월이 되면서 잘 자라는데, 교회 안에서 먹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담임목사의 자녀이다 보니 잘 챙겨주는 모습에 항상 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양손에 각각의 음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 어릴 적 OOO 목사님이 이랬나 보다 하며 놀리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이럴 때는 사모로써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3) 자녀 발달과 행동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연구 참여자 2, 5〉는 아이의 고집, 물건 빼앗기, 공동 장소에서 통제되지 않는 행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말하였다. 이들의 피드백은 아래와 같다.

〈연구 참여자 2의 피드백〉

저의 아이는 30개월 때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중에 잘하지 못하여 내가 도와주었더니 신경질을 부리며 다 흩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누구 성격을 닮았나'하고 '남편의 성격이 이러나'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5의 피드백〉

우리 아이가 34개월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마냥 뺏으려고 하고 가게 안에 있는 물건도 무심코 들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마냥 소리를 질러 대고, 뛰어다니는 까닭에 주의를 주어도 쉽게 고쳐지지 않아 걱정되었습니다.

4) 배우자(부담임목사)와의 양육 분담 갈등

〈연구 참여자 1〉은 남편에게 아이를 안아줄 것과 아빠의 목소리와 체온으로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이 공동 육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부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또한 감정적 단절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연구 참여자 1〉의 고백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 1〉

남편이 늦게라도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게 하고 아이를 만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도 나는 남편에게 반드시 아이를 꼭 안아주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아빠의 숨소리를 듣고, 아빠의 냄새를 맡으며 아빠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많이 자라는 아이들이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원망이 없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정말 소중한 원칙을 지키었다고 생각됩니다.

F. 해석과 논의 (Interpretation and Discussion)

배우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부담임목사 부부가 겪는 현실을 다층적으로 조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2장의 심층 면담의 과정에서 부담임목사들은 주로 사역과 가정의 이중 압박, 그리고 교회 내 권력 역할 구조에 따른 갈등을 중심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배우자들의 피드백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파생하는 심리적, 정서적 차원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부부를 공동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본 질적 연구가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하여 관계적 갈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공동 경험이 공정하게 연구 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시사점을 바탕으로 배우자들의 피드백을 해석한 연구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의 피드백은 심리적 고립감과 정서적 탈진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다. 부담임목사 아내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양육자의 임무를 충실히 전담하고 있었으며, 이는 육체적, 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연구자는 발견하였다. 특히 남편인 부담임목사가 교회 사역으로 인해 가정에 부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들은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이처럼 공동 육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단순한 육아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배우자들의 심리적 고립감과 정서적 탈진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연구자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담임목사 본인의 응답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연구자료로써, 배우자

피드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둘째, 배우자들의 피드백은 교회 공동체 내 시선과 평가가 미치는 심리적 부담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부담임목사 아내들은 교인들로부터 목회자의 아내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암묵적 기대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을 연구자는 확인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예컨대 자녀의 성장 과정, 예배 시간 중 아이의 행동, 교육 방식 등이 교인들의 평가 대상이 되면서, 배우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부담이 아니라, 부담임목사 가정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놓이는 독특한 위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들의 피드백은 교회 내 시선이 부담임목사 가정의 양육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폭 넓게 인식하고,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배우자의 피드백은 양육 스트레스의 독립적 해결 경향과 그 장기적 위험성을 보여주었다. 배우자들은 남편의 부재 속에서 자녀 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감당하려는 태도가 있음을 연구자는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는 자녀 돌봄을 가능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부 간 정서적 거리감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이러한 고립적 해결 방식은 아내의 심리적 소진을 가중시키며, 결국 부부 관계의 친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상호의존성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관계적 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배될 때 일어나는 갈등 구조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의 피드백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하였다.

넷째, 배우자의 피드백은 연구의 이론적 틀인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강화됨을 연구자는 확인하였다. 상호의존성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담임목사 부부는

교회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다층적으로 얽혀 있었다. 배우자의 피드백은 이 관계망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단순히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역할 배분의 불균형에서 비롯됨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배우자가 경험하는 고립감은 애착과 분리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남편의 부재는 배우자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몰입하게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애착 형성을 방해하거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배우자의 피드백은 단순히 연구 참여자의 보조적 자료가 아니라, 연구 현상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해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배우자의 경험은 부담임목사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가정 내부의 긴장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연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배우자 피드백의 수집과 분석은 결과 해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핵심 과정이며, 나아가 교회와 학문적 담론이 부담임목사 가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Chapter IV

질적 연구 결과 해석: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Interpretation of Findings: Focusing on Interdependence and Object Relations Theory)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 가정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교회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관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을 이론적 틀로 적용하였다. 상호의존성 이론은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관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하며, 부담임목사 부부의 교회 사역과 가정생활이 서로 맞물려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대상관계이론은 부모-자녀 관계와 초기 애착 경험이 정서적 안정과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며, 부담임목사 부부가 경험하는 심리적 긴장과 정서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두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중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심리적 반응을 통합적으로 해석하였다.

A. 상호의존성 이론의 관점으로 해석 (Interpreted from the Lens of Interdependence Theory)

1. 상호의존성 이론의 개념 (Conceptual Overview of Interdependence Theory)

상호의존성 이론(Interdependence Theory)은 한 개인의 결과가 상대방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설명한다. 즉, 두 사람은 관계 속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작용 구조와 패턴이 관계의 만족도와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관계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개인들의 합이 아니라, 상호 작용의 역동적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

상호의존성 이론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학문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상호의존성 이론이 '사회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었으며, 인간관계를 보상과 비용의 교환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상호의존성 이론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관계 속 상호작용의 구조와 역동에 주목한다. 즉, 두 사람이 관계 속에서 가지는 선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친밀감이 형성된 두 사람은 서로의 상호의존을 협력적 관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친밀감은 양자체면의 관계의 질과 상호작용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56]

상호의존성 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명체는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57] 무사 두베(Musa Dube)는 상호의존성 이론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사람 사이의 관계적 연결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발휘하게 하는 전 지구적·윤리적 책임"[58]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강남순은 인간이 성숙한 존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의존적 단계(Dependent), 독립적 단계(Independent)를 거쳐 상호의존적 단계(Interdependent)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9]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행동과 선택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관계의 질과 상호작용이 개인과 공동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을 해석할 때, 상호의존성 이론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

[56] 강길호, "친밀성과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의 상호의존성이 양자체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Speech & Communication* 17 (April 2012): 210.

[57] Kathy Black, *A Healing Homiletic Preaching and Disability 치유 설교학*, trans. 이승진 (서울: 기독교문사, 2008), 46.

[58] Musa Dube, *Postcolonial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St. Louis: Chalice, 2000), 15, quoted in HyeRan Kim-Cragg, "A Postcolonial Portrait of Migrants as Vulnerable and Resistant," in *Practical Matters: A Journal of Religious Practices and Practical Theology* 11 (Spring 2018): 6.

[59]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2nd* (파주: 동녘, 2017), 42.

교회 공동체 사이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였다. 즉 목회자 개인의 선택과 행동은 배우자, 자녀, 동료 사역자, 담임목사 등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상호작용 구조가 사역 만족, 가정의 양육 경험, 심리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결과를 결정한다. 따라서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이나 한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관계적·구조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은 하영김이 정의한 상호의존성의 개념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 하영김은 상호의존성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지원을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로 이해하며, 어느 한쪽으로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60]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인 부담임목사 부부는 교회 사역과 가정 내에서 이러한 상호의존적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2. 교회 내 담임목사와의 갈등 (Conflict with the Senior Pastor in the Church)

본 연구에서 부담임목사들은 담임목사와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성 균형이 붕괴된 경험을 공통적으로 응답하였다. 상호의존성은 관계 속에서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지원이 상호적으로 주고받아져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본 연구 참여자들은 담임목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야 하는 비대칭적 구조를 경험하고 있었다.

---

[60] 하영김,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이란?: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는 법," *발견하는 기쁨*, last modified August 19, 2024, https://intojungle.tistory.com/entry/%EC%83%81%ED%98%B8-%EC%9D%98%EC%A1%B4%EC%84%B1interdependence%EC%9D%B4%EB%9E%80-%E3%85%A3%EC%83%81%ED%98%B8-%EC%9D%98%EC%A1%B4%EC%84%B1%EC%97%90-%EA%B8%B0%EB%B0%98%ED%95%9C-%EA%B4%80%EA%B3%84%EB%A5%BC-%EA%B5%AC%EC%B6%95%ED%95%98%EB%8A%94-%EB%B2%95.

1) 부담임목사의 비대칭적 의존

교회와 담임목사는 부담임목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대칭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로버트 코헤인(Robert Keohane)과 조셉 나이(Joseph Nye)의 상호의존성 이론에 따르면, 한 관계 내에서 의존성이 높은 쪽은 구조적 열세에 처하게 되며, 상대방은 이를 권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61] 본 연구 참여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사역해야 했기에 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그 결과 사적인 영역 (가정, 자녀 양육)에서도 담임목사의 지시와 교회 일종에 종속되는 경험을 반복하였다. 실제 심층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 4〉는 '교회의 머슴이 된 느낌이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가족보다 교회가 우선이었다. 담임목사의 모든 지시는 곧 법이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부담임목사가 상호의존적 동역자가 아니라 고용된 일꾼으로 기능하며, 실질적으로 종속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상호의존성 붕괴와 회복의 필요성

본 연구는 부담임목사 가정의 건강성과 안정성이 교회와 담임목사와의 관계 구조 속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담임목사가 부담임목사 개인뿐 아니라 그의 가정과도 상호의존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교회는 부담임목사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정서적, 시간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담임목사는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역을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서 드러난 현실은 이러한 상호의존적 파트너십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방적 의존 구조 속에서 부담임목사 가정이 소모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61] WANG LE(王樂), "한-중 상호의존관계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상호의존이론의 민감성과 취약성을 중심으로" (PhD diss.,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2), 4.

우선, 상호의존성의 부재는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상호의존성 이론에 따르면 관계는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상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유지된다. 그러나 담임목사들은 부담임목사의 가정적 필요와 취약성 (자녀 돌봄,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지원 요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교회 사역만을 우선시하였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 2〉는 '자녀가 응급실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다음 날 담임목사를 공항에 배웅해야만 했다'고 토로하였다. 이는 부담임목사가 가정의 긴급 상황에서도 사적인 필요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받는 구조 속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상호의존적 관계 대신 비대칭적 의존 구조가 강화되며, 부담임목사와 그의 가정은 정서적 소외와 누적된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담임목사 세대의 인식 차이도 상호의존성 붕괴의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담임목사는 대부분 50~60대 후반으로, 한국 교회의 성장기와 권위주의적 목회 문화를 경험한 세대였다. 이들은 목회는 몸으로 배우는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부담임목사들에게 과도한 사역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담임목사의 가정생활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였다. 〈연구 참여자 4〉는 자신을 '교회의 머슴'이라고 표현하며, 교회와 담임목사가 부담임목사를 동역자로 인식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 업무 (우편 분류, 반려동물 돌보기, 가정적 심부름 등)까지 전가하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 5〉는 가족과 식사하는 중에 비가 온다는 이유로 목양실 창문을 닫으라는 지시를 받아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는 담임목사가 부담임목사를 동역자로 존중하기보다, 언제든 지시를 내려야 하는 종속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은, 한국 교회 내에서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의 관계가 상호의존적 동역 관계가 아닌 비대칭적 의존 구조로 고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는

부담임목사 개인의 탈진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가정 내 갈등과 자녀 양육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 교회의 건강성마저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담임목사는 부담임목사의 온전한 존재성을 존중하고, 교회 사역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서적, 시간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교회는 부담임목사와 그 가정을 단순한 고용 관계의 연장선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동역자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현재의 비대칭적 의존 구조를 건강한 상호의존적 파트너십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3. 동료 부담임목사와의 갈등 (Conflict with Fellow Associate Pastors)

부담임목사들은 담임목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동료 부담임목사와의 갈등 또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최소 2명에서 최대 8명의 동료 부담임목사와 함께 사역하고 있었으며, 연령, 사역 경험, 자녀 양육 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담임목사 간의 상호의존적 관계 또한 구조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제약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상호의존성의 균형이 무너진 동료관계

상호의존성은 서로 다른 개인이 각자의 취약성과 필요를 인정하고, 상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사역 현장에서 동료 부담임목사들은 가정과 자녀 양육 등 개인적 필요로 인해 공동의 사역을 충분히 분담하지 못하거나 서로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호의존적 협력보다는 상호 불신과 역할 전가라는 부정적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6〉은 ‘아이들이 늦게 자서 힘들었던 주일 아침, 윗층에 사는 동료 부담임목사가 일부러 청소 소음을 일으켰다고 말하며, 결국 주일 아침에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개인의 취약성(육아 피로, 스트레스)이 동료 부담임목사 간

갈등의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세대 차이와 갈등

연구 참여자들은 X세대 (1965-1979년생), 밀레니얼 세대 (1980-1999년생), Z세대 (2000년대 출생) 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다.[62] 세대 차이는 자녀 양육 방식, 업무 분담에 대한 인식, 사역에 대한 태도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X세대 부담임목사들은 자녀가 성장했거나 양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았다. 반면 M세대 (Z세대 포함) 부담임목사들은 어린 자녀로 인한 시간, 체력적 제약이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동료 부담임목사에게 충분히 이해 받지 못할 경우 심리적 소외와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세대 차이는 동료 부담임목사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부부간의 갈등 (Marital Conflicts)

아내는 남편이 교회에서 부담임목사로 사역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중심이 교회 공동체와 남편의 사역 환경에 종속되는 새로운 관계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선택이기 보다, 목회자 부부로서 관계가 갖는 상호의존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남편의 사역 환경이 아내의 일상과 정체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아내의 삶은 남편의 목회 활동에 따라 조정되는 관계적 현실을 형성한다. 상호의존성 이론에 따르면, 부부 관계는 상호의존적 교환 관계 속에서 유지된다. 각 배우자는 상대방의 행동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만족도, 비용, 보상, 그리고 의존도가 달라진다.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우, 남편은 교회 사역이라는 외적 구조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아내에게 정서적, 시간적 단절이라는 관계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남편의 사역 집중은

---

[62] 민보경, "「Futures Brief」 미래세대(MZ 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세대별 비교 분석 〈제 24-06 호〉," *국회미래연구원*, November 30, 2024,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7549.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보상으로 이어지지만, 동시에 아내의 돌봄 부담과 정서적 소외라는 손실로 귀결된다.

남편의 장시간 사역과 정서적 부재로 인해 아내는 자녀 양육의 전적인 책임을 떠맡게 된다. 출산과 양육 초기 (0~3세)는 부모-자녀 간 애착 형성의 핵심 시기이지만, 남편의 부재는 상호적 돌봄 구조를 약화시킨다. 이로 인해 아내는 신체적 피로와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며, 부부 관계의 상호 보상이 깨진다. 남편이 가정에 잠시 머물더라도, 관계 회복을 위한 정서적 교류보다는 피로 회복이 우선되기 때문에 아내의 기대는 충족되지 않는다. 상호의존성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관계 내 비대칭적 의존구로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아내는 남편의 사역 환경에 의존 관계 (남편-교회-아내) 속에서 아내는 정서적 지지와 돌봄의 균형을 잃고, 관계 만족도가 점차 감소하게 된다. 결국 부담임목사 부부의 갈등은 단순한 역할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 내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편의 사역 중심적 삶과 아내의 돌봄 중심적 삶은 서로를 지탱하지만 동시에 제약하며, 이러한 관계적 긴장은 부부 모두에게 심리적 피로와 갈등을 초래한다.

5. 실천적 시사점 (Practical Implications)

본 연구는 한국 교회 내 부담임목사와 담임목사, 그리고 동료 부담임목사 간의 관계를 상호의존성 관점에서 해석하여, 비대칭적 의존 구조가 부담임목사 개인과 그 가정, 나아가 교회 조직 전체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부담임목사들은 담임목사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시간적·경제적 지원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과도한 종속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가정 내 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개인적 탈진으로 이어졌으며, 장기적으로 교회 전체의 조직적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 간 상호의존적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부담임목사가 단순한 사역 수행자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동역자로 존중받고, 개인적 필요와 가정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역 일정과 업무 부담 조정, 긴급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 자녀 양육 및 개인적 시간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담임목사의 사역 수행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서적 소외와 탈진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동료 부담임목사 간 상호 협력과 신뢰 강화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세대 차이, 사역 경험, 자녀 양육 환경의 차이로 인해 업무 분담과 협력에서 갈등을 경험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2〉는 '자녀가 응급실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담임목사를 공항에 모시는 일을 직접 수행했다'고 응답하여, 구조적 업무 조정의 어려움과 상호 배려 부족이 동료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교회는 동료 부담임목사 간 정기적 소통과 업무 조정, 멘토링, 세대 간 이해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며 공동체적 사역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교회 조직 차원에서 부담임목사와 그 가정의 건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호의존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상담, 시간 관리 지원, 자녀 양육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담임목사가 사역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 1〉의 피드백에서 '사역으로 지친 남편이 아이와 놀아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토로한 사례는, 배우자의 관점에서도 정서적 지원 부족이 상호의존성 붕괴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목회자 가정이 건강한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 회복과 지원 체계 구축은 부담임목사 개인과 가정의 안정뿐

아니라, 교회의 지속 가능한 사역과 조직적 건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향후 교회 정책과 사역 운영에서는 부담임목사와 그 가정의 필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의존적 동역 구조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B.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으로 해석 (Interpretation Through the Lens of Object Relations Theory)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 간 심리적 상호작용과 관계 역동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을 해석의 틀로 삼았다. 대상관계이론은 초기 부모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이 개인의 심리 구조와 대인관계, 애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유아는 생후 초기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경험하며, 점차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분리-개별화 과정(Separation-Individuation)을 거친다. 이 과정은 건강한 애착(Attachment) 형성과 밀접히 연관되며, 안정적 애착은 자기 정체성과 대인관계 발달의 기반이 된다. 반대로, 부모의 일관된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면, 유아는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불안을 경험하고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부모-자녀간 상호작용과 애착 형성의 심리적 역동을 분석하고, 분리-개별화 과정의 특징을 탐구하였다.

1. 대상관계이론 (Overview of Object Relations Theory)

대상관계이론은 초기 정신분석학의 뿌리를 두고 있으나, 욕동을 중심으로 한 프로이트 이론과 달리 인간 발달을 관계, 특히 초기 양육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은 "유아기의 대인관계 경험이 성격 형성과 정신 건강에 결정적 영향"[63]을 미친다고 보았다. 유아는 생애 초기, 특히 0~3세 동안 내면에 중요한 내재화 된 대상관계(Internalized Object Relations)를

[63] 최종혁, 장안기, and 한성희, "정신분석에서의 대상관계이론," 27.

형성하게 되며, 이 과정이 왜곡되거나 충분히 안정되지 못하면 불안, 분열,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클라인에 따르면, 생후 3개월 전후한 유아는 편집-분열적 위치(Paranoid-Schizoid Position)에서 세계를 인지하다가, 점차 우울 적 위치(Depressive Position)로 전환된다. 이 전환 과정에서 양육자,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때 아동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다.[64]

대상관계이론에 따르면, 유아는 0~3세 시기에 중요한 발달 과정을 경험하며, 클라인은 "이 시기의 유아가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성인보다 깊은 자기 통찰과 수용 능력을 지닌 주체"[65]로 보았다. 클라인은 유아가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엄청난 불안으로 매우 연약하지만, 놀이(Play)를 통해 억압된 정서와 내적 갈등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놀이를 단순한 오락이 아닌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핵심적 통로로 이해했다. 대상관계이론은 기존 정신분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성격장애 환자의 충동성, 자아의 급격한 변화, 전이의 혼란 등을 이해하기 위해 주목받게 되었으며, 이는 오이디푸스기 이전의 초기 발달 손상이 성격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66]

2. 분리-개별화 과정 (Separation-Individuation Process)

마거릿 말러(Margaret Mahler)의 분리-개별화 이론에 따르면, 유아는 6개월~ 3세 사이에 어머니로부터 점차 분리, 독립하는 과정을 거치는데,[67] 이때 아빠의 안정적, 정서적 개입이 부족하면 심각한 불안을 경험한다. 본 연구의 부담임목사 가정의 자녀들은 아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착이나

---

[64] 최종혁, 장안기, and 한성희, "정신분석에서의 대상관계이론," 28.

[65] 배영광의 심리연구소, "대상관계이론 창시자 '멜라니 클라인': 배영광의 'WHO AM I'," posted October 24, 2021, YouTube, 2:06:32, https://www.youtube.com/watch?v=C0DlYeiift8.

[66] 최종혁, 장안기, and 한성희, "정신분석에서의 대상관계이론," 27.

[67] Magaret S. Mahler, Fred Pine, and Anni Bergman,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유아의 심리적 탄생*, 71.

무관심을 보이고, 엄마와 문리 상황에서는 과도한 불안을 나타냈다. 이는 아빠가 안정적 대안 애착 대상으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건강한 분리-개별화를 방해하고 불안정 애착 형성으로 이어질 위험을 보여주었다.

말러의 분리-개별화 이론은 영아가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한다. 초기 유아는 어머니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다가,[68] 점차 독립하여 개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양육자의 일관된 정서적 지지와 신체적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

> 첫째, 1단계는 정상적인 자폐 단계로 0~2개월이다.
> 둘째, 2단계는 정상적 공생 단계로 2~6개월이다.
> 셋째, 3단계는 분리-개별화 단계로 6~24개월이다.
> 넷째, 4단계는 대상 항상성 단계로 24개월 이후를 말한다.[69]

이 과정에서 안정된 양육자가 정서적 대상이 되어줄 경우, 자녀는 건강한 심리적 독립을 경험한다.

3. 애착 (Attachment)

존 볼비(John Bowlby)는 애착을 "자신과 가까운 특정 인물에게 접근하여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행동 양식과 그 결과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70]로 정의했다. 애착은 단순한 정서적 관계를 넘어서 유아의 생존 본능과 안정감 형성, 그리고 평생 지속될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간주된다.[71] 볼비의 애착 행동은 울기, 미소 짓기, 매달리기, 뒤따라가기, 찾기 등이며, 애착 대상은 주로 어머니 (주 양육자)이다. 애착 발달의 핵심은 근접성을 유지하려는

---

[68] Magaret S. Mahler, Fred Pine, and Anni Bergman,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유아의 심리적 탄생*, 77.

[69] 최종혁, 장안기, and 한성희, "정신분석에서의 대상관계이론," 35.

[70] 박은영, "애착 이론과 자아분화 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MA thesis,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2002), 7.

[71] 박은영, "애착 이론과 자아분화 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3.

본능적 행동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볼비에 따르면 애착 관계는 양육자가 유아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형성되며, 거부나 무관심은 분리 불안과 심리적 불안을 유발한다고 설명하였다.[72]

4. 부담임목사 가정에의 적용 (Application to Associate Pastoral Families)

본 연구에서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된 부담임목사 부부들의 경험은, 초기 자녀 성장 과정에서 아빠의 정서적 개입이 부재하거나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잘 보여준다. 대상관계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초기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 대상 표상을 형성하며, 이는 자아 구조와 대인관계 양식을 규정한다. 아동이 안정된 대상을 내면화하지 못할 경우, 정서적 불안정과 불완전한 애착 양식이 형성될 위험이 높아진다.[73] 본 연구에서 드러난 부담임목사 가정의 사례들은 이러한 위험이 교회와 구조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말러에 따르면, 유아는 생후 6개월부터 3세 사이에 어머니로부터 점차 독립해 가는 발달 과정을 거치며 심리적 자율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양육자의 지지가 필수적이다.[74] 〈연구 참여자 1〉은 '남편이 새벽기도와 교회 일정으로 늘 자리를 비우니 아이가 아빠를 찾다가 울곤 했다'고 응답했다. 부담임목사 가정의 경우, 아빠가 사역으로 인해 가정에 부재하거나 정서적 민감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 결과 자녀는 엄마와의 분리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을 보이거나 아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과도한 집착과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건강한

---

[72] David J. Wallin, *Attachment in Psychotherapy 애착과 심리치료*, trans. 김진숙, 이지연, and 윤숙경 (서울: 학지사, 2019), 28.

[73] Jeremy Holmer,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존 볼비와 애착이론*, trans. 이경숙 (서울: 학지사, 2005), 117.

[74] Magaret S. Mahler, Fred Pine, and Anni Bergman,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유아의 심리적 탄생*, 77.

분리-개별화 과정이 지연되거나 왜곡되었음을 시사한다.

애착 이론은 아동이 부모와 맺는 관계의 질이 이후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적 적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75] 〈연구 참여자 3〉은 '남편이 교회에서는 존경받지만, 집에서는 아이와 거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부담임목사 가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역으로 지친 아빠가 집에 돌아온 후 자녀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배우자와 자녀 모두에게 정서적 결핍을 경험하게 한다. 배우자는 남편을 정서적으로 닫힌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자녀는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채 불안정 애착의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환경은 가족 내 갈등을 심화시키며, 자녀의 심리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가 충분히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자녀는 의지할 수 없는 내적 대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불안, 분노, 회피적 관계 양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연구 참여자 중 한 사례에서는 자녀가 응급실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담임목사를 공항에 모셔야 했던 일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배우자에게는 남편을 믿을 수 없는 대상으로 각인시키고, 자녀에게는 아버지를 부재하는 대상으로 내면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결국 가족 간 상호의존성이 약화되고, 가정 내 정서적 지지 체계는 붕괴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가정 내부의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구조적 특성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담임목사 중심의 체계 속에서 부담임목사는 과중한 사역과 장시간 노동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곧 가정에서 아빠로서 수행해야 할 대상 역할의 결여로 이어진다. 아동에게 필요한 정서적 대상 경험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자녀는 내적 대상관계의 불균형과

---

[75] 이미령, "위기 가족을 위한 공간 중심 가족 놀이치료 사례연구-의사소통과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실천신학회* 84 (May 2022): 41-2.

불안정 자아 구조 형성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76] 동시에 아내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상실한 채 양육의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하게 되며, 이는 정서적 고립감과 소진을 가중시킨다.

종합적으로 부담임목사 가정에 대한 해석은, 가정과 사역이 긴밀히 얽혀 있는 목회자의 삶에서 대상관계, 분리-개별화, 애착이 단순한 발달 심리적 개념을 넘어 실질적인 관계적·구조적 과제임을 드러냈다. 아빠의 정서적 개입 부족은 자녀 발달의 취약성을 초래하며, 이는 배우자의 정서적 불만과 부부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결국 가족 전체의 관계적 안정성을 위협하였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 가정이 건강한 상호의존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서적 상담, 자녀 양육 지원, 시간 관리 제도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실천적 시사점 (Practical Implications)

본 연구는 대상관계이론, 분리-개별화, 애착 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부담임목사 가정의 사례를 해석함으로써, 목회자의 사역 구조와 가정 내 심리·정서적 역동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드러내었다. 연구 결과, 초기 발달 과정에서 아버지의 지속적 부재와 정서적 비참여는 자녀의 안정적 애착 형성을 저해하고,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심리적 왜곡을 유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배우자 역시 배우자로서, 공동 양육자로서 이중적 부담을 감당하게 되면서 정서적 소진과 관계적 고립을 경험하였다. 이는 결국 부부 간 상호의존성의 붕괴와 가족 전체의 관계적 긴장으로 확장되었다.

첫째, 발달심리학적 시사점으로, 아빠가 제2 애착 대상이자 안정적 대상관계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자녀의 내적 대상 표상은 결핍과 불안정성에 기초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아 정체성 형성과 대인관계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 가정의 자녀 성장 과정은 단순히

[76] John Bowlby, *Attachment 애착*, trans. 김창대 (경기도: 나남출판, 2009), 608-09.

개인적 문제가 아닌, 교회 구조와 목회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발달 환경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부 관계적 시사점으로, 부담임목사의 장시간 사역과 정서적 부재는 배우자에게 과도한 양육 책임을 전가시키며, 이는 부부 관계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아내는 정서적 지지를 상실한 채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심리적 탈진과 부부 간 정서적 거리감을 초래한다. 대상관계이론적 관점에서 이는 배우자가 남편을 부재하는 대상으로 내면화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부부 간 신뢰와 친밀성의 약화를 가져온다.

셋째, 교회 조직 및 제도적 시사점으로, 한국 교회의 사역 구조가 부담임목사에게 과도한 노동과 헌신을 요구함으로써, 가정 내 필수적인 심리·정서적 기능 수행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교회는 목회자의 사역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가정의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정기적인 가족 돌봄 시간 보장, 정서 상담 제공, 자녀 양육 지원 체계 마련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목회자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정서적 건강과 직결된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담임목사 가정의 경험을 통해 가정 내 대상관계, 분리–개별화, 애착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드러내었다. 나아가 목회자의 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할 때, 이는 곧 교회의 건강성과도 직결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목회자 사역의 지속 가능성과 교회의 공동체적 성숙을 위해, 목회자 가정을 심리·정서적 관점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Chapter V

논의와 결론 (Discussion and Conclusion)

본 연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부담임목사 부부가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갈등과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였다. 나 자신이 부담임목사로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한데서 비롯된 본 연구는, 비슷한 사역과 가정 환경을 가진 동료 부담임목사 부부들과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는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는 동시에 동료 부담임목사 부부들의 공통된 경험에 깊이 공감하였고, 한국 개신교회에서, 좁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부담임목사 부부가 경험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에 이면을 해석할 수 있었다.

A. 전체 요약 (Summary of Findings)

부담임목사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 8명과 심층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4개의 핵심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목회자 간 권력 역학과 역할 갈등이다.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목회적 요청 하에, 동역자 관계이지만, 그 요청이 교회 사역의 공적인 범위를 넘어 사적인 영역으로 경계 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담임목사의 개인적 요청이 목회 사역과 연결되면서, 부담임목사는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 사이에서 나타나는 권력 관계와 역할 갈등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부담임목사 부부가 경험한 자녀 양육과 경제적 압박이다. 부담임목사 부부가 교회로부터 제공받는 월 생활비는 수도권 지역에서 기본적인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담임목사 부부는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였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역과 가정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가정의 일상적 삶에 그치지 않고, 자녀 교육과 미래 계획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부담임목사 부부는 사역에 전념하고자 하는 소명 의식과 가정의 생계 책임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목회자의 정체성과 역할 이해에 갈등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사례로 확인되었다.

셋째, 목회 사역과 부모 역할의 갈등이다. 부담임목사 부부는 교회 사역에 헌신하려는 소명과 가정에서 부모로서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사역의 요구와 가정생활이 충돌할 때 부모로서 역할이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압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담임목사 부부는 정체성 혼란과 갈등을 경험했으며, 이는 목회 사역과 부모 역할이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해결의 한계이다. 부담임목사 부부는 사역 과정에서 누적되는 긴장과 갈등에 지속적으로 직면하지만, 이를 해소하거나 조정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개인의 신앙 훈련이나 자율적 노력에 의존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 결과 마음이 지치게 되었고, 부부 사이와 동료 부담임목사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결국 부담임목사 부부는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수용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목회 현장에서 갈등을 풀어낼 장치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와의 관계가 동역자라는 상호의존 관계로 존재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속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부담임목사 부부의 자녀 양육 과정에서 공동 양육자와 자녀 간의 애착 형성과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들은 대상관계이론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부부가 공동 양육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배우자 한쪽이 반복적으로 육아를 전담하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긴장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부부 관계뿐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 더 나아가 동료 부담임목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관계망 전반에 복합적인 문제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자녀 양육 과정에서 애착의 불완전성과 분리 불안의 위험이 가중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의 차원을 넘어섰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관계적, 심리적 맥락에서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목회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 개신교에서 부담임목사 가정이 겪는 여러 갈등들과 어려움들이 단순히 개인의 책임과 문제가 아니라, 교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다층적, 다면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특히 가부장제와 비슷한 위계적 사역 구조, 자녀 양육과 가정 돌봄을 간과하는 교회 문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부담임목사 가정의 삶을 한층 더 힘들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담임목사 가정이 겪는 갈등과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개신교의 사역 구조와 목회자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B. 목회적 시사점과 실천 가능한 돌봄 제안 (Pastor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Proposals for Care)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회와 관련된 시사점과 실천 가능성을 논의한다. 첫째, 교회 내 조직과 사역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다. 부담임목사가 동역자로서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 구조를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 상호간의 관계 (예: 직분자와 비직분자,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등 다양한 위계적 관계들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단일한 위계 질서에 종속되는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인 동역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교회는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노력을 통해 목회적 돌봄을 해야 한다.

둘째, 가정 친화적 목회 문화가 교회 내에서 형성되고, 실천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교회는 부담임목사 가정과 자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부담임목사에게 가정과 교회, 자녀 양육 모두가 목회의 일부임에도, 현실에서는 교회가 교회 목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담임목사를 포함한 전체 교역자들이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가정 목회도 병행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담임목사 가정이 실제로 가정 친화적 목회 문화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부담임목사 가정의 삶과 사역을 고려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목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정의 화목을 위해 부부가 자녀와 함께 쉴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을 지원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별도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다면, 부담임목사 가정은 쉼을 누릴 뿐 아니라 관계 회복의 기회도 얻게 된다.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화목한 가정은 목회자의 사역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이러한 배려는 단지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 간의 신뢰가 형성되면, 그 관계의 건강함이 성도들에게도 전달된다. 성도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교역자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불안을 느낀다. 반대로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 사이에 진정한 신뢰와 우정이 존재할 때, 성도들은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부담임목사 가정을 향한 세심한 목회적 배려는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목회의 기쁨을 회복하며,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전체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넷째,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와 그 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단은 부부 세미나, 가정 사역 지원, 목회자 부부 상담, 상담 프로그램, 심리적 지원, 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갈등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교단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개별 교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문제를 보완하며, 장기적으로 목회자의 삶과 교회 공동체의 안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교회와 교단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부담임목사 스스로 자기 돌봄과 영적 성찰을 통해 건강한 목회자이자 가정의 정서적 자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에 대한 책임적 헌신으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마련하여 신뢰와 유대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협력적 동역자의 위치를 확립하며,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상호 존중 속에서 공동 양육책임자로 서야 한다.

이와 같은 교회, 교단 차원의 구조적 지원과 부담임목사 개인의 결단이 함께 이루어질 때, 목회 사역과 가정의 균형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목회 문화와 신앙 공동체의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제언은 단순히 부담임목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목회자조차 자녀 출산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현실은 교회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후속 연구의 필요성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본 연구는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삶의 경험을 질적 연구로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과정과 범위, 방법에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향후 후속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제한성과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특정 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일부 부담임목사 부부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교단과 지역의 배경이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교회는 교단별 신학 전통과 목회 문화가 다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교단이나 모든 목회자 가정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인 관계망이 활용되었으므로, 연구자와의 친밀감이나 교류 경험이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단, 지역, 교회 규모가 다양한 부담임목사 부부를 포함하여 표본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배우자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피드백을 통해 아내의 경험을 일정 부분 반영하였으나, 자료 수집 과정은 주로 남편인 부담임목사의 심층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공동 양육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아내의 목소리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아내가 경험하는 정서적 소진, 심리적 고립, 교회 내 시선으로 인한 부담은 별도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담임목사 아내를 직접 심층 면담하여 그들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부의 경험을 각각 독립적으로 수집하고,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부부 관계에서 드러나는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더욱 다층적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심층적인 경험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질적 연구 특성상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불가피하게 개입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 결과의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에는 일정한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 목회 배경과 개인 경험이 해석 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거나 혼합 연구 설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담임목사 가정의 양육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 사역 만족도 등을 설문지로 계량화하고,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 보완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과 학문적 설득력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교회 구조와 제도적 요인 분석의 부족이다. 본 연구는 주로 개인과 가정 차원에서 경험되는 갈등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부담임목사 부부가 직면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교회 구조와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사례비 수준, 근로 조건, 사역 분담 체계, 담임목사와의 권력 관계 등은 목회자의 개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 문제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교회 제도와 구조 차원에서 부담임목사 가정을 둘러싼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 운영위원회, 교단 행정 구조, 목회자 고용 제도, 교회 내 성도들의 인식 등이 부담임목사 부부의 삶과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회학적·조직신학적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교회와 교단 차원의 구체적 정책 제안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다섯째, 자녀의 성장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한 분석 부족이다. 본 연구는 주로 자녀가 3세 이하일 때의 양육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부 갈등은 자녀의 발달과 행동 문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기 양육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 애착 형성, 사회적 발달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후속 연구에서 심도 있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회자의 자녀들은 교회 내에서 목회자 자녀(PK, Pastor’s Kid)라는 특별한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 받음으로써, 일반 또래 집단과 다른 독특한 사회화 과정을 경험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담임목사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 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특징 등을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의 양육 경험을 넘어 목회자 가정 전체의 장기적 삶과 발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여섯째, 사회적 맥락과의 연계 부족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 경제적 양육 부담 등 사회적 맥락과

일정 부분 연결되었으나, 그 분석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는 구조적·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며, 목회자 가정 역시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과 가정 차원의 경험에 머물렀다. 후속 연구에서는 목회자 가정의 경험을 한국 사회 전체의 저출산 문제, 노동 조건, 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목회자 가정이 단순히 교회 내부의 특수한 집단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위치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또한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임목사 부부의 경험을 조명함으로써 목회 사역과 가정생활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의 제한, 배우자 관점의 반영 부족, 질적 방법의 한계, 교회 구조 분석의 미흡, 자녀 발달에 대한 장기적 영향의 고려 부족, 사회적 맥락과의 연계 부족 등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다양한 교단과 지역을 포함한 표본 확대, 부부 양측의 경험을 독립적으로 수집하고 비교 분석, 질적·양적 혼합 연구 방법 도입, 교회 제도와 정책 분석, 자녀 발달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사회적·국가적 맥락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될 때, 한국 교회는 부담임목사 가정의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목회자의 소명, 가정, 교회 공동체, 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적 목회 신학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D. 나의 목회 이야기: 갈등의 회복과 변혁을 지향하며 (My Pastoral Reflection: Toward Healing and Transformation of Conflict)

나는 2009년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서울 L교회에서 부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자도 목회자로서 소명과 동역자로서 남편, 그리고 공동 양육자로서 부모의 책임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을 경험해왔다. 위계적인 교회 구조 내에서 부담임목사로서 사역의 경험은 언제나 눈치 보느라 힘들었고, 연구자는 그러한 교회 문화에서 생존하기 위해 또 다른 중요한 목회의 영역인 가정과 공동 자녀 양육의 과정은 종종 뒤로 밀려났거나 방치했었다. 아내가 자녀 양육을 전담해야 했던 상황과 자녀의 성장 과정에 충분히 동행하지 못한 자책감은 연구자에게 지금도 여전히 무거운 갈등으로 남아있다. 이번 연구는 나의 개인적 갈등에서 출발하였다. 동료 부담임목사들과 그 배우자들의 이야기를 연구 참여자로 초대하여 경청하며, 내가 겪은 어려움과 갈등이 결코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목회자의 가정은 교회 내 위계 구조 속에서 종종 간과되는 현상을 연구자는 목격하였다. 목회자의 배우자들은 이 문화 속에서 정서적 고립과 소진을 경험했으며, 자녀들은 목회자의 자녀라는 이름 아래 특별한 시선과 기대 속에 놓이곤 했다. 이러한 경험을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의 틀로 해석하면서, 목회자의 가정 갈등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조적, 관계적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목회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했다. 앞으로 남은 20년의 목회는 담임목사로서 부교역자와 그 가정의 건강,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상호의존성과 정서적 안정까지 함께 고려하는 총체적 사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는 이 여정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이 지향하는 방향, 즉 치유(Healing), 회복(Renewal), 변혁(Transformation)의 길로 세우고자 한다. 첫째, 치유(Healing)의 목회이다. 목회자 가정이 지닌 보이지 않는 상처와 성도들의 삶 속 아픔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는 공동체를 세우자 한다. 목회자가 가정에서 경험한 아픔을 솔직히 고백하고 나눌 때,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완벽한 목회자의 가면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처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는 치유의 장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목회는 치유를 목회의 부차적 결과가 아니라 본질적 목표로 삼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회복(Renewal)의 목회이다. 목회자 가정이 무너지고 소진되면, 결국 교회 공동체 전체도 지쳐간다. 이번 연구를 통해 나는 목회자 가정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배웠다. 남은 사역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삶의 균형을 찾고,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예배, 소그룹, 상담, 돌봄 사역 등 모든 활동이 회복을 향한 길이 될 수 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과 직결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회복과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셋째, 변혁(Transformation)의 목회이다. 기존의 목회 구조는 권위적, 위계적 방식으로 운영되어, 부담임목사와 그 가정에 반복적인 희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상호의존성의 원리와 대상관계이론의 통찰은 교회가 새로운 관계의 질서로 변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목회자는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는 팀으로 사역해야 하며,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정 역시 교회의 일부로 존중해야 한다. 나의 남은 20년은 이 변혁의 사역을 실천하는 데 바쳐질 것이다. 교회 안에서 권위 중심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 중심의 목회 구조를 확립하고, 자녀와 다음 세대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결국 나의 사역은 가정을 돌보고, 동료와 협력하며, 자녀와 다음 세대를 품는 동시에, 치유, 회복, 변혁의 길을 실천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목회는 더 이상 교회 성장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삶의 변혁과 공동체 회복을 이루는 사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20년 동안 나는 나의 가정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변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나의 연구가 작은 씨앗이 되어 한국 교회가 목회자의 가정과 성도의 가정을 지지하며, 상처 입은

이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운 변혁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부록 A〉

연구참여동의서
(Appendix A: Informed Consent Form)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at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이병희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와 육아의 경험: 기독교대한감리회 부담임목사 부부의 3 세 이하 자녀 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 – 상호의존성과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 실천신학 교수인 우진성 교수와 김남중 교수의 지도 아래 수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교수진과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njkim@cst.edu)로 연락하시거나 (+1 646-***-****)[7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인터뷰에 약 50 분 정도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는 가급적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화상(Zoom)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될 것입니다. 녹음되는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고, 연구가 끝나면 모두 파기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성함, 나이, 성별, 연락처 등의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 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만 보관되고 연구 종료 (2025 년 12 월) 후에는 안전하게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77]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녹음 중지를 요청하거나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 철회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연구 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참여 철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연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 이병희 목사의 전화번호 010-****-****[78] 혹은, 이메일 byounghee.lee@cst.edu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검토를 받았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24-003)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전화번호 010-****-**** 혹은, 이메일 viastar@hanmail.net 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 가능합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 이름:
날짜:
연구 참여자의 서명:
연구자의 이름:
날짜:
연구자의 서명:

[78] 위 연구 자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시하였으나, 실제 연구참여동의서에는 전화번호를 기입하였다.

〈부록 B〉

콜라이찌 자료 분석 결과
(Appendix B: Colaizzi-Based Data Analysis Results)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묶음	범주	
1	부목사는 교회에 매여 있다. 아이가 아파도 아내에게 먼저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의 고용이 종속적인 관계	A	목회자 간 권력 역학과 역할 갈등
2	둘째 아이가 출산하는 날에도 교구 심방 스케줄이 잡혀 출산하는 곳에 가지 못했다.			
3	담임목사가 공항에 가는 일정 때문에 자녀가 아파도 담임목사를 모시고 공항으로 갔다.			
4	나는 사역하는 동안 교회의 머슴이라고 생각했다.			
5	담임목사는 가족과 함께 하시는 시간에도 개인 잡무를 시켰다.			
6	아내가 출산 후 교회에 언제 가야 하나고 물었다가 사모에게 면박을 당했다.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묶음	범주	
1	나는 돈을 벌고, 아내는 살림과 육아를 해야 한다.	목회 사명과 돈의 관계	B	부담임목사 자녀 양육과 경제적 압박
2	자녀를 선교원에 보낼 때에 성도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3	아이 양육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4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묶음	범주	
1	교회는 너의 직장이지 너의 집이 아니다.	자녀를 돌보고 싶어하는 아빠의 마음	C	목회 사역과 부모 역할의 갈등
2	교회에서 아빠 역할이 거세된 느낌이다.			
3	교회 사역 때문에 아빠와 만날 수 없는 자녀			
4	아빠가 화내면 자녀가 눈치를 본다.			
5	대외 행사에서도 아빠의 부재를 느끼는 자녀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묶음	범주	
1	문제 상황에서 갈등 제기 대신 조용히 떠나는 방법 선택	갈등 유발 대신 해결을 위한 노력	D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해결의 한계
2	살림과 육아를 하면서 혼자 교회 예배에 앉아 잇는 아내의 모습			
3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참고			
4	외로움과 산후 우울증을 가까운 마트 외출이나 대화로 해소 시도			
5	친정에 100 일간 아내를 보내서 휴식 제공			
6	아이가 밤에 울면 아빠가 직접 재우려고 노력			
7	부부 사이가 좋으면 갈등도 해결된다고 생각			
8	역할 분담을 확실히 했지만 결국 자신이 떠안게 됨			
9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를 병원에서 치료			
10	자녀 훈육 방식 차이도 사랑과 배려로 아내에게 양보			

본 분석표는 콜라이찌(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 도출 → 주제 묶음 형성 → 4 개의 범주로 통합한 결과이다. 이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질적 연구 결과 도출과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부록 C〉

동료 검증 과정을 통해 수집된 피드백과 연구자의 응답
(Appendix C: Peer Feedback and Researcher Responses)

연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동료 검정과정을 거쳤으며, 동료 검증을 통해 수집된 피드백과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table>
<tr><th colspan="2">피드백 내용</th></tr>
<tr><td>동료 1</td><td>〈연구 결과와 분석〉

연구자는 부담임목회자 부부가 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잘 접근하였다.

범주 콜라이찌 연구 방법 분석 범주에 따라 심층 면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고 본다. 의미있는 진술들을 추출하였고, 주제를 묶고, 핵심 범주를 4개로 효과적으로 분석하였다. 첫번째 범주 목회자 간 권력 역학과 역할 갈등, 두번째 범주 부담임목사 자녀 양육과 경제적 압박, 세번째 범주 목회 사역과 부모 역할의 갈등, 네번째 범주로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해결의 한계 및 구조적인 부분을 잘 다루었다. 이는 부담임목사가 교회와 가정에서 겪어야 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피드백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성으로 처리하여 윤리성을 높였다. 또한 연구자는 보완 자료를 잘 활용 하였다. 배우자에게 서면 피드백을 받아서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u>아쉬운 점은 3세 이하 자녀 양육의 주 책임자는 배우자라는 개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든다</u>.

연구자는 목회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육아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에, 각주를 달아서 오늘의 현실에서는 부부가 함께 양육을 분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면 연구자가 차별적인 의식이 없다는 점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 부담임목회자의 ‘공동양육’에 대한 경험과, 담임목사와 부담임목회자 사이의 동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곳의 경험을 비교하여 연구하였으면 한다.</td></tr>
<tr><td>연구자의 동료 1 의 피드백에 대한 응답</td><td>동료 1은 3세 이하 자녀 양육의 주책임자는 배우자라는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동료 검증을 위해 자료를 공유하고, 지도 교수의</td></tr>
</table>

<table>
<tr><td></td><td>지도 아래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3세 이하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양육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본문에 반영하였다.</td></tr>
<tr><td>동료 2</td><td>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부담임목사 부부의 3세 이하 자녀 양육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 시도로서 독창성과 학문적 기여가 뚜렷하다.

현상학적 연구의 목적은 참여자의 ‘살아 있는 경험(lived experience)’을 충실히 기술하고, 그 경험의 본질(essence)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강점과 개선점을 지니고 있다.

[강점]

기존 연구가 주로 담임목사 가정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던 부담임목사 가정을 연구 참여자로 삼은 점은 연구의 독창성을 잘 드러낸다. 이는 교회 구조 속에서 소외된 목소리를 경청했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연구의 사회적, 윤리적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적용하여 의미 있는 진술, 주제 묶음, 범주를 도출하는 과정은 현상학적 연구 설계와 부합한다. 특히 ‘참여자의 진술 → 의미 부여 → 주제화 → 본질 도출’ 이라는 분석 흐름이 논문 전체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다.

연구자가 부담임목사로서 동일한 맥락에 있는 내부자(insider)라는 점은 참여자와의 공감, 신뢰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중요한 ‘경험의 깊이와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분석 결과를 교회의 제도적, 관계적 개선 방안과 연결시킨 점은 연구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실천적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목회학적 질적연구로서 중요한 기여라 할 수 있다.

[개선점]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있다. <u>참여자의 다수가 남성 부담임목사와 아내(주양육자)로 구성되어 있어, 여성 부담임목사 혹은 다양한 가족 형태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배제되었다. 이는 연구 결과의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에 일정한 한계를 부여한다</u>.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의미 있는 진술이 요약 위주로 제시되어 있어, 참여자의 생생한 언어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직접 인용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독자가 현상의 본질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자가 내부자라는 점은 강점이자 동시에 잠재적 한계점이다. 연구 과정에서 자신의 선이해와 편견을 어떻게 괄호 치기(Bracketing)했는지, 또 연구자의</td></tr>
</table>

	위치성이 결과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상호의존성 이론과 대상관계이론의 도입은 연구 해석을 풍부하게 하나, 각 범주와 이론 개념 사이의 직접적 연결이 다소 추상적으로 서술된 부분이 있다. 각 이론 개념이 참여자의 경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보강하면 분석의 설득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특성과 목적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연구 주제 또한 학문적·실천적 기여도가 크다. 다만, 참여자의 다양성, 자료 제시 방식, 연구자 성찰의 구체성, 이론 적용의 긴밀성이 보완된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부담임목사 가정의 경험을 최초로 본격적으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서도 타당성과 가치가 높다.
연구자의 동료 2 의 피드백에 대한 응답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은 여성 부담임목사이며, 총 8명의 연구 참여자 가운데 부부가 동시에 부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부부가 함께 사역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연구자 선정 부분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료 3	〈연구 분석과 연구 결과에 대한 피드백〉 연구자는 자신의 사역환경의 경험에서 비롯된 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담임목사 부부가 겪는 갈등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경청하기 위해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독교대한감리회 부담임목사 부부들의 경험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갖는 본질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를 콜라이지의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25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핵심 범주를 4개(첫번째 범주: 목회자 간 권력 역학과 역할 갈등, 두 번째 범주: 부담임목사 자녀양육과 경제적 압박, 세 번째 범주: 목회 사역과 부모 역할의 갈등, 네 번째 범주: 스트레스 관리와 갈등 해결의 한계)로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부담임목사의 사역환경의 질이 가정과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부담임목사의 사역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일 때, 그로 인한 갈등이 결국 가정과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것은 결국 사회적으로는 저출산 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상호의존성과 대상관계이론의 관점이라는 신학으로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특별히,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담임목사 부부는 자녀 양육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데, 부담임목사라는 교회 내의 위치와 역할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교회 내 사역 구조의 재정립, 가정 친화적 목회 문화 확산, 경제적 지원과 배려 확대, 교단 차원의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등이다. 다만 연구 결과에서 아쉬운 점은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담임목사 부부의 변화이다. 부담임목사 부부의 지속적인 목회를 위해 교회의 구조나 문화, 지원 등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연구자나 연구 참여자는 가정과 교회, 사회를 위하여 어떤 변화를 이룰 것인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동료 4	〈연구 분석〉 "엄마! 아빠한테 우리 집에 또 놀러오라고 해요." "이건 교회에 있는 건데요, 우리한테 잘 해주고요, 장난감도 사줘요. 이건 뭘까요?" 위의 두 문장은 본인의 아이들이 5살, 4살 시절에 했던 이야기이다. 첫번째 문장은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돌아가는 나를 보면서 5살 딸이 아내에게 했던 말이다. 두번째 문장은 아이들과 아내가 스무고개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아내에게 냈던 문제이다. 정답은 "아빠"다.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5년간 사역하면서 들었던 말 중 가장 가슴 아픈 말이다. 담임목사는 자신도 이러한 말을 들었다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사역한 교회 중에서 가장 대우가 좋았지만, 그 교회를 사임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를 읽어가면서 남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 프로젝트의 연구가 가지는 가장 큰 설득력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연구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으리라 생각한다. 그의 경험에서 시작된 의문은, 주변의 젊은 동료 목회자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였고, 그들의 아픔과 갈등에 집중하게 했다. 자기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문제를 살펴보고, 치유한다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 목회학박사 과정이 추구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방법론에 대한 평가〉 이 프로젝트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청취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기법을 활용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인터뷰의 내용이 정확한지 연구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려 노력하였다.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 여러가지 노력은 이 프로젝트가 매우 신뢰할만한 것임을 분명하게 해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연구참여자들이 전부 남성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목회자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성 목회자와 여성 목회자의 비율을 4:4, 또는 3:5 정도로 선정하였다면 프로젝트가 보다 입체적이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남성 목회자의 자녀 양육 경험과 여성 목회자의 자녀 양육 경험은 분명하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정서에서 남성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지만, 여성 목회자는 목회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한다. 때로는 자녀 양육을 위해 목회를 포기하기를 선택하거나, 그러한 선택을 강요받기도 한다. 만일 프로젝트가 이러한 부분까지 다루었다면, 훨씬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또다른 아쉬운 점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거의 대부분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자녀들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11살, 7살, 13살, 10살, 22살, 15살, 10살이다. 자녀가 7살인 경우는 그래도 오래되지 않았지만, 자녀가 22살인 경우는 그 경험이 꽤 오래된 과거의 것이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화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면, 현재 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를 연구 참여자로, 최소한 그 경험이 3년이 경과되지 않는 목회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와 양육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과 어려움을 더 생생하게 청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독창적인 면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콜라이지의 분석 방법에 따라 범주화 하면서 목회자간 권력과 역할 갈등과 자녀 양육과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범주를 설정한 것이다. 이 범주들은 가장 현실적인 내용이지만, 그 어떤 연구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다. 부담임목사가 담임목사의 동역자가 아닌 사적 업무 수행자 또는 종속적인 고용관계로 작동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통하여 자녀 양육의 문제에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발견하고 용기를 내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자녀 양육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자녀 양육비를 지출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담임목사의 경험, 이에 대한 성도들의 평가도 의식해야 하는 어려움은 이 연구가 현실적인 연구임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남성인 연구 참여자가 아닌 양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연구 참여자의 피드백을 듣고, 이를 프로젝트에 반영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연구 참여자의 성별을 적절하게 섞었다면 훨씬 다채롭고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아쉽다. 훗날 이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양육을 담당하는 배우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라 생각한다.

〈부록 D〉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의 피드백 참여 동의서
(Appendix D: Consent Form for Spousal Feedback Participation)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at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이병희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와 육아의 경험: 기독교대한감리회 부담임목사 부부의 3 세 이하 자녀 양육에 관한 질적 연구 – 상호의존성과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 실천신학 교수인 우진성 교수와 김남중 교수의 지도 아래 수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와 관련하여 지도 교수진과 연락을 원하신다면, 이메일(njkim@cst.edu) 또는 전화(+1 64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귀하는 연구의 1 장 서론, 2 장 연구 방법과 절차, 그리고 *부록 B(콜라이찌 분석 절차에 따른 결과 분석)을 PDF 파일로 받게 되며,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질문 ① 남편이 교회 사역으로 바쁠 때,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담임목사의 배우자이자 자녀의 부모로서 경험하는 정서적·심리적 어려움과 주변의 시선은 어떠한가요?

질문 ② 자녀의 발달이나 행동과 관련해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며, 남편과 양육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겪은 갈등이나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피드백 제공 시, 귀하의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 (예: 연구 참여자 1의 피드백)으로 처리됩니다. 연구 종료(2025년 12월) 후 모든 자료는 안전하게 폐기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며, 언제든지 참여 철회 또는 질문 거부가 가능합니다. 연구 참여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연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자 이병희 목사의 전화번호 010-****-****[79] 혹은, 이메일 byounghee.lee@cst.edu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검토를 받았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24-003)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 심사위원회 회장 김두영 박사의 전화번호 010-****-**** 혹은, 이메일 viastar@hanmail.net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 가능합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 동의 확인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충분히 읽었으며, 연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모든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양식의 사본을 받았으며, 양식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메일로 발송되었고, 이를 통해 답변 발송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연구자 이병희 목사 드림

[79] 위 연구 자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시하였으나, 실제 연구참여동의서에는 전화번호를 기입하였다.

〈부록 E〉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의 피드백 내용
(Appendix E: Spousal Feedback Content)

다음은 아래 질문들에 대한 공동 양육자인 배우자의 피드백 내용이다.

질문 1: 남편의 바쁜 사역으로 인해 부담임목사 배우자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겪는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과 주변의 시선은 어떠한가요?

질문 2: 자녀의 발달 행동 문제와 남편과의 양육 분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을 경험하셨나요.

피드백 내용	
피드백 참여자 1	저희 아이가 20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든 엄마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야 놀이를 했고, 잠시라도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아이가 크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어려움을 알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밤늦게 돌아온 남편이 피곤한 몸으로 아빠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화가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특별한 사명이라 생각하고,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내가 맡아 남편의 목회를 돕는 것이 최선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피드백 참여자 2	저희 아이는 30개월이 되었을 때 고집이 심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잘 못하면 도와주려 해도 화를 내며 다 흩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 성격을 닮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드백 참여자 3	저희 아이는 35개월이 될 때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놀아도 언어 표현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 선생님께서 계속 물어봐야 겨우 대답을 할 때 '부담임목사 자녀가 왜 말을 안하지'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드백 참여자 4	아이를 키우면서 먹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모유 수유도 거부하고 이유식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신체 발육이 더뎌 걱정이었는데, 교인들은 저희 부부가 키가 크니까 걱정이 없겠다고 말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피드백 참여자 5	아이 나이 34 개월 때, 가게에서 물건을 들고 나오는 일이나 다른 아이 물건을 뺏으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소리 지르고 뛰어다녀서 주의를 줘도 잘 고쳐지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피드백 참여자 6	아이가 20 개월 때 남편이 부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는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특히 청년들이 아이를 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아이에게 '한 입만' 하며 아이스크림을 물게 하자, 우리 아이는 그 아이스크림을 바로 땅에 버렸습니다. 청년들이 그걸 재미 있어 하며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 성격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피드백 참여자 7	아이 나이 25 개월 무렵, 교회 안에서 음식을 양손 가득 쥐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귀여워하며 먹을 것을 잘 챙겨주었는데, 누군가 'OOO 목사님이 어릴 때 저랬나 보다'라고 말할 때 사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의 배우자인 공동 양육자들의 실제적이고 생생한 피드백을 통해 부담임목사 가정에서 자녀 양육이 얼마나 현실적 어려움과 갈등을 수반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1 차 자료]

한서

가스펠서브.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2nd*. 파주: 동녘, 2017.

김영천. *질적연구 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_. *질적연구 방법론 IV: Case Studie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______.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6.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and 김한별.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2018.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2*. 서울: 통계개발원, 2022.

현유광. *갈등을 넘는 목회*.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번역서

김혜란. *Interdependence: A Postcolonial Feminist Practical Theology 상호의존성: 포스트여성주의 실천신학*. Translated by 이호은. 서울: 동연, 2020.

Black, Kathy. *A Healing Homiletic Preaching and Disability 치유 설교학*. Translated by 이승진. 서울: 기독교문사, 2008.

Bowlby, John. *Attachment 애착*. Translated by 김창대. 경기도: 나남출판, 2009.

___________.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존 볼비의 안전기지*. Translated by 김수임, 강예리, and 강민철. 서울: 학지사, 2014.

Creswell, John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질적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Translated by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and 권지성. 서울: 학지사, 2022.

Holmer, Jeremy.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존 볼비와 애착이론*. Translated by 이경숙. 서울: 학지사, 2005.

Mahler, Magaret S., Fred Pine, and Anni Bergman.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유아의 심리적 탄생: 공생과 개별화*. Translated by 이재훈. 서울: 한국심리치료 연구소, 1997.

Wallin, David J. *Attachment in Psychotherapy 애착과 심리치료*. Translated by 김진숙, 이지연, and 윤숙경. 서울: 학지사, 2019.

저널

강길호. "친밀성과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의 상호의존성이 양자체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Speech & Communication* 17 (April 2012): 202–33.

방희정. "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parenting)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14, no. 1 (2009): 67–91.

양숙경 and 문혁준.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 관계가 만 1,2 세반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8, no. 2 (2010): 131–46.

이미령. "위기 가족을 위한 공간 중심 가족 놀이치료 사례연구–의사소통과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실천신학회* 84 (May 2022): 11–46.

이정순. "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 no. 2 (2003): 183–99.

최윤희 and 원숙연. "자녀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 29, no. 3 (2020): 103–33.

최종혁, 장안기, and 한성희. "정신분석에서의 대상관계이론." *임상연구논문집* 12 (1999): 25–41.

Klein, Melanie. "Notes on Some Schizoid Mechanism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7 (1946): 99–110.

논문

고현숙. "21 세기 한국 교회가 필요로 하는 부교역자 리더십 연구." ThM thesis,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9.

김영은. "목회자 아내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MA thesi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김영철.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설교를 향하여: 제 29 회 장신설교대회 참가자들의 설교 예화에 관한 질적 연구."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19.

김충진. “기독교대한감리회 1980 년대생 부교역자들의 목사 안수 포기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DMin projec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23.

박은영. “애착 이론과 자아분화 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MA thesis,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2002.

안승철. “목회협력자로서 부목사의 역할 연구.” DMin project,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4.

이기윤. “남성 목회자의 우울증에 대한 연구.” MA thesis,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2008.

이은주.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 및 신앙의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Winnicott 이론을 중심으로.” MA thesis, 총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15.

전혜선. “모성의 부재와 대상관계이론: 토니 모리슨의 「가장 슬픈 눈」, 「술라」,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를 중심으로.” PhD diss.,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정삼환.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는 목회자의 가정: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Th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1.

최상호.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목회적 관계.” ThM thesis,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WANG LE(王樂). “한-중 상호의존관계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상호의존이론의 민감성과 취약성을 중심으로.” PhD diss.,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22.

웹사이트

하영김.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이란?: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하는 법.” *발견하는 기쁨*, last modified August 19, 2024. https://intojungle.tistory.com/entry/%EC%83%81%ED%98%B8-%EC%9D%98%EC%A1%B4%EC%84%B1interdependence%EC%9D%B4%EB%9E%80-%E3%85%A3%EC%83%81%ED%98%B8-%EC%9D%98%EC%A1%B4%EC%84%B1%EC%97%90-%EA%B8%B0%EB%B0%98%ED%95%9C-%EA%B4%80%EA%B3%84%EB%A5%BC-%EA%B5%AC%EC%B6%95%ED%95%98%EB%8A%94-%EB%B2%95.

배영광의 심리연구소. “대상관계이론 창시자 ‘멜라니 클라인’: 배영광의 ‘WHO AM I’.” Posted October 24, 2021. YouTube, 2:06:32. https://www.youtube.com/watch?v=C0DlYeiift8.

이하나. “자녀 1 명 키우는데 3 억 6500 만원… 한국, 양육비 가장 비싼 나라.” *여성신문*, May 9, 2023.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733.

전혜원. “합계출산율 0.7 명 사회 한국은 정말 끝나는가.” *시사 IN*, January 10, 202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890.

민보경. "「Futures Brief」 미래세대(MZ 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세대별 비교 분석 〈제 24-06 호〉." *국회미래연구원*, November 30, 2024.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7549.

지용근. "[통계로 교회 읽기] '부목사가 보는 한국교회: 부목사 하루 9.8 시간, 5.7 일 근무!'." *문화선교연구원*, August 30, 2022. https://www.cricum.com/future/?bmode=view&idx=12722714.

[2차 자료]

영서

Dube, Musa. *Postcolonial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St. Louis: Chalice, 2000.

번역서

Freud, Sigmund.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쾌락 원칙을 넘어서.* Translated by 강영계.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저널 및 논문

김영미. "대상관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분리-개별화, 대상관계수준 및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검증." MA thesis.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2014.

김준수.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 *복음과 상담* 8 (May 2007): 38-58.

박태영. "이혼 의향이 있는 목회자 부인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 분석."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한국가족복지학* 18, no. 2 (June 2013): 5-39.

웹사이트

기독실업인회 CBMC 153 지회. "상호의존성의 패러다임(153 지회 이영미 대표 2023.3.28)." Posted March 27, 2023. YouTube, 24:56. https://www.youtube.com/watch?v=cj7K1WXUmo4&t=1308s.